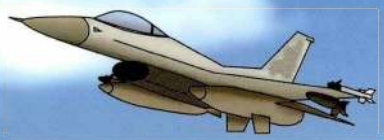
MONTHLY MAGAZINE
VOL. 395. 2011. 05

06 삼각지 논객 공중급유기 도입의 필요성
12 World-Wide Vision 합격의 고지를 위해
40 PhotoToon! '밥심' 이 곧 전투력이다!
54 Health Diary 봄철 황사와 건강관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공군병

오늘의 공군을 만든 투혼

GLOBAL & INSIGHT

06

06 **삼각지 논객** 공중급유기 도입, 공군력 극대화를 위한 선택 아닌 필수
08 Leadership+ 내 인생의 두 은인
10 **프로메테우스의 눈** 자연재해와 군
12 World-Wide Vision 미군 최고의 정예 부대 레인저, 합격의 고지를 위해
16 Global AF 유럽형 '스텔스'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

공군IN

20

20 **기획특집** 공군병, 그 자랑스런 뿌리
30 **포토프레임@AF**
32 AIR FORCE MONTHLY
36 Photo Sketch 해맑은 어린이들의 순수한 동심 속으로
38 **생각하는 그림** 68살의 신입생
40 PhotoToon! '밥심' 이 곧 전투력이다! 제11전투비행단 병사식당 탐방기

COVER STORY

지난 4월 8일, 약 64년 만에 공군병은 드디어 700기 시대를 맞았다.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공군병들의 모습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은건 푸른 하늘과 공군인이라는 자부심이 아닐까 한다.
표지제작 조주영 | 일러스트레이터

CULTURE 36.5

44

44 Hollywood English 킹스 스피치
46 Behind the Canvas 농사의 신성함을 일깨워 주는 화가, 밀레
48 인생은 아름다워 참회를 거부한 어느 매력남의 최후,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50 Preview 5월의 문화행사

OPINION

52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3월호를 읽고서
52 창공 글터 추기경과 어머니
54 Health Diary 봄철 황사와 건강관리
56 책마을 실행이 답이다

MONTHLYMAGAZINE
VOL. 395. 2011. 05

발행일자 2011년 4월 28일(통권 제395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자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령 손경수 **기획 · 편집**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기용호, 소위 류재영 **디자인 · 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3월호를 읽고서

LETTERS TO THE EDITOR

01 월간 「공군」은 [아들]이다. 제 아들은 13살이랍니다. 할아버지, 큰 아빠, 아빠 모두 다 공군을 제대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기도 공군이라네요. 3월호에서는 〈Global AF〉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는 세계 최초 실전 배치! F-22 랩터'라는 기사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아들이 전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프라모델도 전투기만 조립하구요. 아들과 같이 읽는데 아는 척도 많이 하고, 잘 몰랐다면서 다시 읽는 모습이 귀엽네요.
– 대전 동구, 성시옥

02 월간 「공군」은 [아이들의 꿈]이다. 우주로 꿈과 희망을 실어 비상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3월호에서는 기획특집인 〈스타와 공군의 아름다운 동행〉이 재밌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보통 군대를 생각하면,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들이 군대를 감으로써 좀 더 대중적이고 친밀한 군대문화를 형성하고 발전하는데 이 기획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강원도 강릉시, 김현주**

03 월간 「공군」은 [청춘]이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만난 3월호, TV를 통해 만난 그림이지만, 표지를 장식한 한 장의 사진이 나의 청춘에 빨간색을 칠했다. 푸른 창공, 빨간마후라, 한때, 나의 젊음을 불태운 기억을 새롭게 해준다. 더불어 부국강병의 기둥으로 자란 공군의 청춘을 응원한다. 언제나 내 맘의 창공을 빛내주는 그대, 월간 공군은 나의 청춘이다. 3월호에서는 〈Health Diary〉의 '청력에 대한 관심, 귀를 보호합시다!'가 기억에 남았다. 특히 소음에 대한 노출이 많은 우리 공군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사가 아닌가 싶다. **– 충북 청주시, 김기성**

04 월간 「공군」은 [거울]이다. 모든 공군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와우~! 표지에 영웅호걸 멤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방송한 걸 기념삼아 이번 호 표지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정말 방송보구 공군분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번 호에서 좋았던 내용은 〈스타와 공군의 아름다운 동행〉에서 '영웅호걸, 빨간 마후라를 품나게 두르다'였어요. 이렇게 책으로 보니까 색다른 것 같아요. 그때 공군 여러분들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이렇게 공군 여러분이 힘들게 나라를 지키시니 너무 든든했습니다. **– 전남 순천시, 전종권**

05 월간 「공군」은 [사랑]이다.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공군지를 읽으면 사랑처럼 여러 감정이 생기거든요. 행복하고, 슬프기도 하구요. 이번호에서 흥미롭게 읽었던 기사는요! 바로 기획특집 〈스타와 공군의 아름다운 동행〉에서 '전역을 앞둔 조인성 병장 인터뷰'였답니다. 이 기사로 인해서 저는 조인성씨에 대해 더더욱 팬이 된 것 같아요. 공군이 된 조인성 병장의 군 생활을 알 수 있어서 색달랐어요. 앞으로도 어떤 기사가 나올지 기대가 되요! **– 전남 여수시, 양이준**

06 월간 「공군」은 [보물]이다. 공군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호에서는 기획특집인 〈스타와 공군의 아름다운 동행〉에서 '영웅호걸, 빨간 마후라를 품나게 두르다'라는 기사를 흥미롭게 봤어요. TV에서 한 공군 병사의 엄마와 만날 때 그 기쁨과 감동이 제게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공군!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공군과 영웅호걸, 아자아자 파이팅! **– 광주 광산구, 이길벗**

Global & Insight

공중급유기 도입
공군력 극대화를 위한 선택 아닌 필수
* 삼각지 논객

내 인생의 두 은인
* Leadership+

자연재해와 군
* 프로메테우스의 눈

미군 최고의 정예 부대 레인저,
합격의 고지를 위해
* World-Wide Vision

유럽형 '스텔스'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
(Eurofighter Typhoon)
* Global AF

글. 윤상호 | 동아일보 차장, 국방부 출입기자

공중급유기 도입 공군력 극대화를 위한 선택 아닌 필수

이야기 하나

"매번 하는 작업이지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만큼 신기하고 긴장된 순간이다."

2006년 동아일보 뉴욕 특파원이 미국 공군의 협조를 얻어 KC-135 공중급유기에 동승해 취재 보도한 기사 내용 가운데 기내에서 연료주입용 호스인 붐(boom)을 조작하던 에디 마크 하사가 밝힌 소감이다. 그만큼 공중급유는 공군 임무의 꽃으로 불릴 만큼 고난도의 작업이다. 급유기의 급유 노즐을 전투기의 연료탱크에 한 치 오차 없이 결합시켜야 하고, 자칫 급유기의 노즐과 전투기 기체 사이의 마찰로 발생한 불꽃이 인화성이 강한 항공유에 옮겨붙을 경우 대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 급유기와 전투기가 1만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똑같이 속도와 고도를 맞춰 펼친 '공중급유쇼'는 한마디로 장관이었다고 기사는 전했다.

이야기 둘

올해 2월 미 국방부는 신형 공중급유기(KC-X)로 보잉사의 KC-46A를 선정했다. KC-46A 급유기는 최대 91톤의 항공유를 싣고 미 공군의 모든 항공기에 대해 급유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미 공군이 1960년대부터 운용해 온 KC-135와 KC-10 등 낡은 기종을 대체할 신형 급유기의 사업규모는 총 179대로 금액으론 약 350억 달러(약 38조 원)에 달한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보다 많은 거액이다. 미국이 경제위기로 국방예산을 삭감하면서 다른 전력사업들은 연기하거나 축소했지만 공중급유기 사업은 예정대로 강행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공중급유기를 미 안보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전 세계 각지의 분쟁에 개입하면서 항공모함을 '바다의 힘', 공중급유기를 '하늘의 힘'으로 활용해왔다. 걸프전 때인 1991년 1월 미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 폭격기 7대는 35시간을 쉬지 않고 비행해 걸프만을 폭격하고 귀환해 최장거리 전투출격 기록을 세웠다. 공중급유기의 숨은 공로 덕분이었다.

두 이야기가 한국 공군과는 무관한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리는가. 그렇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공중급유기 전력 실태를 살펴보자.

일본 항공자위대는 2003년 주일미군과 사상 처음으로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규슈(九州) 상공에서 실시한 이 훈련에서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은 미 KC-135 공중급유기로부터 급유를 받았다. KC-135 1대에는 소형승용차가 198만㎞를 운행할 수 있는 약 9만719㎏의 연료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다.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전투기 1대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데 2,3분이면 충분하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2006년 항공자위대가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에 앞서 운용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2003년 당시 공중급

유기 도입을 결정하면서 북의 군사위협을 주된 배경으로 내세웠다.

그로부터 7년 뒤인 지난해 1월 일본 항공자위대는 보잉사의 KC-767J 공중급유기 4대의 도입을 완료했다. 일본은 2008년 2월 1호기를 시작으로 마지막 4호기까지 인도받아 작전 배치해 운용 중이다. 이후 일 항공자위대의 작전반경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24시간 운용되는 공중급유기 덕분에 일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더 이상 연료 걱정 없이 전천후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외에도 이스라엘, 싱가폴, 네덜란드 등 29개국이 공중급유기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사업은 17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국방부는 1994년부터 국방중기계획에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을 반영했지만 8차례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관련예산은 삭감됐다. 참여정부에서 만든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5년까지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려던 계획도 현 정부 들어 크게 수정돼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도 군 일각에선 공중급유기를 공격도 방어도 할 수 없는 '공중 주유소' 정도로 과소평가하거나 한반도의 좁은 전장에서 별 쓸모가 없는 값비싼 전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동북아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F-15K를 60대나 운용할 예정이고, 최첨단 스텔스전투기까지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 공군에게 공중급유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전력이다.

공중급유기의 장점은 단순히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전장에서 전투기의 무장력과 타격력을 극대화하는데 급유기는 없어선 안 될 전력이다. 전투기들은 기종에 따라 최대 이륙중량이 제한돼 연료량에 따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량이 제약을 받게 된다. 체공시간을 늘리기 위해 연료를 채울수록 무기 탑재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강의 F-15K 전투기도 이런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공군이 공중급유기를 갖게 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KF-16, F-15K 전투기는 지금보다 배 이상의 강력한 무장을 하고서 체공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투기 1대가 2~3번 출격해서 해야 할 임무를 단 한번의 출격으로 가능토록 하는데서 공중급유기의 가치가 확인되는 것이다. 한국 공군이 보유할 F-15K 60대를 배 이상의 가공할 전력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해법이 바로 공중급유기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인 600대 이상의 공중급유기를 운용중인 미국이 왜 신형 기종의 도입을 서두르는지, 다른 나라들은 왜 앞 다퉈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려는지를 쉽게 유출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너무 느긋한 게 아닌가 싶다. 한반도 유사시 공중급유는 전적으로 미군에 의지해야 한다. 그나마 KF-16과 F-15K의 한미간 공중급유 훈련도 올 하반기에 처음 실시될 예정이다.

강력한 공군력은 전장의 승패를 가르고 국익을 수호할 핵심전력이다. 공군력은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결실을 볼 수 있다. 당장의 예산을 걱정해 앞으로의 핵심전력 도입을 계속 머뭇거리다간 부국강병(富國强兵)의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공중급유기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항공우주강군의 초석을 다지는 첫 단추가 돼야 한다. **AF**

 글. 김경섭 | 한국리더십센터 그룹 회장

내 인생의 두 은인

'선생님과 스승' 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선생님은 지식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스승은 지혜를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 일생 동안 선생님과 스승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가진 사람은 행운아라는 이야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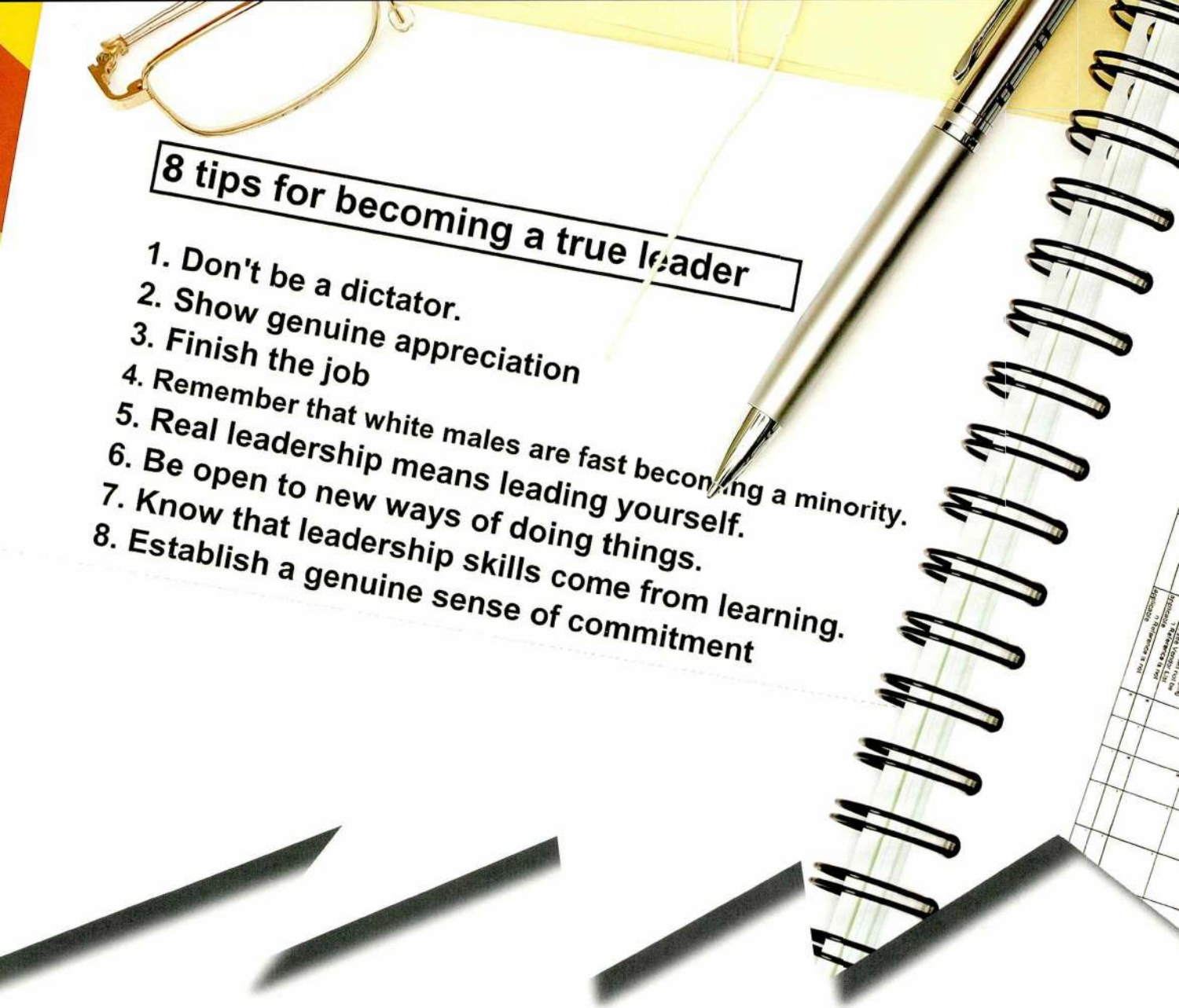
나는 다행히 선생님과 스승을 각각 한 명씩을 가진 '행운아' 이다.

해방 직후에 개교해 변변한 교실도 없던 시절에, 나는 앞바다와 뒷산 사이에 위치한 벽지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도로까지 나가려면 한 시간이나 걸어야 되는 시골 학교였다. 서너 명 남짓한 선생님은 옆 동네에 사는 임시 교사였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류조일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광주에 있는 큰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폐가 나쁘니 공기가 좋은 바닷가에서 요양하라' 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우리 학교에 부임하신 것이다.

선생님은 말더듬이였던 나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때부터 나는 학력이 급신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당시 호남의 명문인 광주 서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해 대도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때 만약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또 한 분, 내 인생의 스승은 스티븐 코비 박사이다. 그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을 번역하기 위해 1993년 여름에 첫 만남을 가진 후,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나는 그에게 수많은 삶의 지혜를 배웠다. 돌팔이 남편이자 아빠이고 사장이었던 나에게 그는 돌팔이가 아닌 자격증을 가진 남편, 아빠, 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그런 그에게서 오래 전, '김 박사는 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한 사람'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우면서도 당황스러웠다. 그 후로도 여러 번 비슷한 칭찬을 들을 때마다 스승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그의 장점을 따르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곤 한다.



그는 매우 지혜로워서 마치 '지혜의 보고'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그가 7가지 습관과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곤 한다.

먼저 그는 마음이 따뜻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7가지 습관의 번역을 마치고 한국 독자들을 위한 서문을 써 달라고 했을 때가 생각난다. 그는 사랑과 지혜가 담긴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직접 한국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수차례 글을 다듬으며 상의를 하는 정성을 보였다. 그는 항상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발음을 구사해서 알아듣기가 쉽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티븐 코비 박사의 오디오 테이프를 영어 듣기 연습에 이용한다고도 한다.

그의 표정은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특히 사진 촬영을 할 때 보면 항상 미소를 짓는데 그런 모습은 따르기가 쉽지 않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티븐 코비는 내 인생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요즘은 훌륭한 선생님은 많지만 스승은 찾기 힘들다고 한다. 신영복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먼 훗날 어떤 리더, 어떤 스승으로 기억되기 원하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리한 지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목과 무관심도 아니다. 리더십에 대한 거창한 이론들이 많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타인 입장의 사고방식, 관심, 칭찬과 인정,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리더십'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AF**

글. 진성훈 | 한국일보 기자

자연재해와 군

동일본 대지진(또는 도호쿠(東北) 대지진, 3 · 11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컸다. '크다' 앞에 '매우', '정말' 이란 단어를 수십 개를 붙여본들, '참사' 니, '악몽' 이니 하는 인류 문명이 만든 훌륭한 '문자' 를 모두 동원한들, 순식간에 생을 마감한 수만명이 느꼈을 단말마(斷末魔)와 이들이 뒤에 남기고 떠난 애절한 삶을 온전히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차라리 가장 무미건조한 숫자를 사용해 얼핏 그 뒤에 숨어 있을 수많은 인생을 느껴보자. 대지진 한 달을 맞아 일본 당국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는 1만 3,116명,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합한 총수는 2만 7,621명이었다. 건물 4만 8,747채가 붕괴했고, 도로는 2,136곳이 손상을 입었다. 아직까지도 2,300여 개 피난소에 15만 1,115명이 대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45억년을 살아 온 지구의 몸부림 한 번에, 이 땅에 등장한 지 고작 300만년 밖에 되지 않는 인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대자연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란 대개 이런 것이다.

일본 자위대, 잃은 것과 얻은 것

군대(사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니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도 피해가지는 못했다. 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미야기현에는 항공자위대가 있었다. 기지는 바닷가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바닷물은 기지 위 2m 높이까지 밀어닥쳤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격납고에 대기 중이던 F-2 전투기 18대와 구조헬기 4대 등 28대의 항공기가 파손됐다. 격납고에서 떠내려 와 곳곳에 무참히 처박힌 전투기 사진이 대지진 초기 국내 언론을 장식하기도 했다. 항공자위대 피해액은 무려 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이런 물적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을 얻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흥미로운 보도를 했다. 요컨대 대지진과 쓰나미 참사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극도로 위축돼 있던 자위대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다. 자위대원 24만 명 가운데 이번 재난구조 활동에 투입된 인원은 10만 6,000명에 달했다. 자위대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를 구하고 희생자를 발굴하기 위해 무너진 건물더미를 수색했다. 이재민들에게 물과 각종 생필품을 공급했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을 무릅쓰고 육상자위대의 특수부대는 대지진 직후 소방대원들보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에 투입돼 폭발을 피해가며 투혼을 발휘했다. 항공자위대 역시 후쿠시마 원전 상공에서 냉각수를 투하하는 위험한 임무에 나섰다. 그리고 이 모든 자위대원들의 영웅적 활약은 TV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

됐다. 그들은 모두 자위대원복을 입고 있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고문은 "일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비난 일색이지만 자위대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재정 문제로 자위대 예산이 가까운 시일 내에 크게 늘기는 힘들다 해도 어떤 정치인도 '용감하게' 자위대 예산을 줄이겠다고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이 뿐일까. 아직도 진행 중인 대지진의 여파를 수습하면서 일본 정부는 물론 자위대 역시 소중한 자산을 쌓아갈 것이다. 2차 대전 패전의 폐허 속에서도 지금의 경제대국을 만들어 낸 일본이다. 이번 대지진에서도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인재(人災) 비판이 적지 않지만 그들은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설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라는 3중의 재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자위대의 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경험이란 소중한 것이다. 특히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그 활동이 극히 제약되고 있는 자위대 입장에서는 자연의 공습에 준(準) 전시나 다름없었던 이번 대지진은 결과적으로 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군대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전 세계에 파병해 소중한 경험을 쌓는 모습을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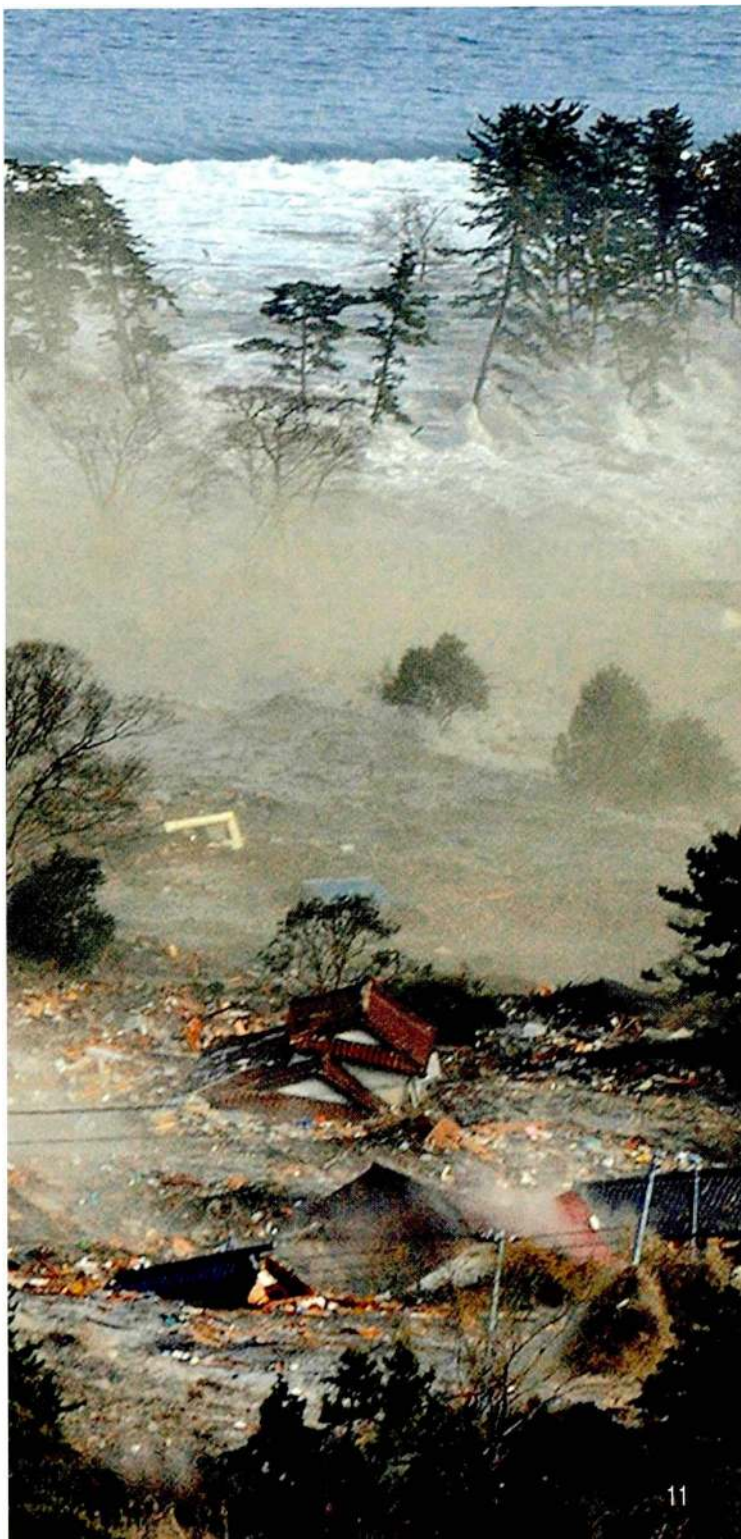
대지진을 바라보는 군의 자세

이제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자위대의 일본 내 위상이 강화하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을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렇게 용감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자위대를 답답한 막사에만 묶어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리라. 자위대의 역할 확대는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와의 갈등 소지를 내포한다. 나아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혹자는 아직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일본인들인데,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재앙을 입은 그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마음으로 성원하고, 성금을 보내는 것과 이 문제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얼마 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키며 따뜻한 지원을 아까지 않던 우리나라에 대고 '지원은 지원이고…' 식의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일본의 이런 행태에 비하면 필자의 자위대 걱정은 아무 것도 아니다.

덧붙여 이런 상상도 해본다. 앞으로 행여 우리나라에 대형 자연재해가 닥친다면 자위대는 노하우를 앞세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 군복을 입은 일본인이 다시 우리 땅을 밟는 일은 그 취지를 떠나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우리 정부나 군 역시 대형 자연재해에서의 대응 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차원에서 평소 외국의 재난 현장 지원에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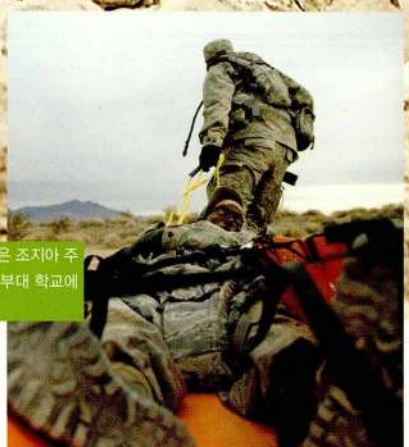
절망에 맞서는 인간의 무기는 낙관과 용기

다시 재난 얘기로 돌아가자. 올해 초 '127시간'이란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다. 2003년 홀로 미 유타주의 광활한 블루존 캐년으로 여행을 떠난 청년이 협곡을 지나다 굴러 떨어진 바위에 팔이 끼어 꼼짝할 수 없게 됐던 실화를 다루고 있다. 아무도 지나지 않는 바위틈에 고립된 채 약간의 물과 식량, 나이프, 로프만을 가지고 127시간을 버텼던 그는 결국 탈출에 성공한다. 그의 첫째 무기는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였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지고 있던 캠코더로 자신을 녹화하면서 '토크쇼'를 찍는다. 사회자가 되고, 출연자가 돼서 비관적인 자신의 처지를 개그 소재로 삼아 웃음을 짓는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물이 떨어지고, 헛것이 보일 지경이 되자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린다. 그는 자신을 옭아맨 팔뚝을 자른다. 절망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다시 삶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 희생은 필요한 법이다. 이러한 낙관과 용기는 비단 자연재해에서뿐 아니라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군에서도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AF**



글. 황성호 | ○○○로스쿨 재학, 예비역 공군 동역장교 원문. 미 공군 〈Airman Magazine〉

미군 최고의 정예 부대 레인저, 합격의 고지를 위해



사전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교육생은 조지아 주 포트 베닝 기지에 소재한 미 육군 레인저 특수부대 학교에 입교할 수 있다.

마이클 에커트 상병이 네바다 주 크리치 공군기지에서 레인저 특수부대 사전훈련 프로그램에서 사격을 하고 있다.

교육생들이, 돌멩이와 장난감 군인 그리고 종이 등을 통해, 사전훈련 프로그램의 임무를 설명하고 있다.

랄프 존슨 중위는 눈앞에 펼쳐진 수평선을 주시하고, 주변 지형을 둘러본다. 사막지대 한 가운데 서있는 그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다 할 장애물 없는 척박한 이곳에 유일한 식물은 선인장과 유카 나무와 땅에 파인 작은 T자형 자국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을 탓한다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중요한 건 그의 팀이 받은 브리핑 정보가 틀리지 않다면, 이 지역에서 적군의 움직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존슨 중위는 선봉에 선 분대장으로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 분대원들은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실망시키거나, 행여라도 나중에 누군가의 가족에게 "댁의 아드님이 전장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싶진 않다. 그가 분대원을 이끄는 한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때, 갑자기 전방에서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왔다. 직감적으로, 그는 오른손을 치켜들어 분대원들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다. 그를 따라 전진하던 분대원들이 일제히 제자리에 멈춰 자세를 낮췄다. 분대장인 존슨 중위는 강렬하고 눈부신 햇빛 사이로 전방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맥박은 빨라지고, 감각은 예민해졌다. 그의 눈이 응시한 바로 그곳, 전방 약 100미터 앞 모조 건물의 끝자락에 중동 특유의 복장을 한 적군이 있었다.

"적군 탐지"

분대장은 무전기로 상황을 알렸다.

"전방 100미터, 적군 탐지됨, 다시 전달, 적군 발견"

"알겠다 오버, 확인 요망"

소대장으로부터 답변이 돌아왔다.

"알겠다, 오버"

무전기로 알린 후, 그는 곁에 있던 분대원 세 명에게 지시했다.

"알파(A) 분대"

먼저 움직인 분대장을 분대원들이 뒤따랐다. 알파 분대는 조심스런 움직임으로 목표물을 예의 주시하며 점점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는 시야 한 편에, 다른 두 지원 분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각 분대 역시 서서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

'저들이 브라보 그리고 찰리 분대가 되겠군.'

"전방위 엄호사격 준비완료"

그는 생각했다.

"여기는 알파 분대"

매트 가너 상병과 피트 비치니 병장이 레인저 특수부대 사전훈련 프로그램에서 총기를 정비하고 있다.

교육생들이 네바다 주 크리치 공군기지에서 실시되는 2주간의 레인저 특수부대 사전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습

그는 무전기로 교신을 시작했다.

"목표물이 아직 저기 있다, 계속 전진하는 것이 좋겠나?"

"그렇다"

반대편에서 답변이 들려왔다.

"예의 주시하며 진행하라...."

"타탕탕, 타탕탕, 타탕탕"

갑작스런 자동화기의 총격 소리로 교신이 단절됐다. 분대원들은 모두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다. 몸은 굳어져 갔으며, 동공은 커졌다. 존슨 중위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교전 개시!"

"교전 개시!"

"우측에 적군, 집중 사격 실시!"

"아군 1명 부상, 1명 부상!"

"반격 개시, 적군을 섬멸하라!"

시간이 무뎌진 듯, 1초가 마치 1분처럼 느껴진다. 충격과 혼란의 상황이 지나자, 시간의 흐름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하다. 이어, 존슨 중위가 외친다.

"240밀리 기관총 준비!"

"제압 사격이 필요하다!"

그는 분대원들의 얼굴에서,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행동개시를 알렸다.

"오케이, 알파 분대는 저기 있는 참호까지 진격한다"

낮은 자세로, 존슨 중위가 먼저 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진격하자 적군의 맹렬한 사격이 이어졌다. 존슨 중위가 참호에 도착하자마자 곧 분대원들도 뒤따라 참호에 뛰어들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브라보 분대와 찰리 분대가 개활지에 적군의 사격에 고립되어 있었다. 각 분대장들은 절박하게 무전기로 지원을 교신했다. 그때, 육중한 소리가 빗발치는 총성 사이를 갈랐다. 바로 240밀리 중화기 기관총이었다.

"탕, 탕탕!!"

'아군의 제압 사격이 시작되었군'

브라보와 찰리 분대의 화기에선 흰색 연기와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존슨 중위는 분대원들에게 총기를 눈높이로 유지하고, 전방으로 진격하라고 지시했다. 존슨 중위는 건물 가까이에서 자세를 낮추고 있는 적군을 확인하고, 자신의 M-4 소총을 발사했다. 적군은 곧 쓰러지고, 전투는 종료됐다.

"상황 보고"

소대장이 물었다.

"예, 아군 1명 전사, 적군 3명 사살 입니다."

다른 분대장이 대답했다.

"젠장!"

소대장이 실망스런 얼굴로 외쳤다.

"그렇다!"

어디선가 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는 여기서 1명의 동료를 잃었지만, 실제 상황이었다면, 훨씬 더 많은 희생자를 냈을 것이다."

모두들 그 목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리자, 돌 더미 위에서 한 사람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강철같이 날카로운 눈과 손가락은 소대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너희 분대는 너무 분산돼 중화기를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끌었다."

그는 다그치며 말했다.

"한심하고, 실망스럽군."

소대장은 묵묵부답이었다. 할말이 없었다. 이곳은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 훈련 교관이 하는 말은 성경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훈련 교관은 교육생들에게 소리 지르고, 압박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도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교관은 이와 같은 실전 상황을 무수히 경험했기에 구태여 이러한 사실을 드러낼 필요도 없다. 그의 상의에 붙어있는 작은 기장 하

나가 모든 설명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 기장은 바로 '레인저 특수부대' 의 패찰이었다.

이 상황은 중동 걸프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 모습이 아니다. 이곳은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 근처의 사막에서 이뤄지는, 미 공군의 '레인저 특수부대 예비훈련 프로그램' (이하 예비훈련)의 모습이다. 본 예비훈련의 목표는 간단하다. 미 공군 소속 장병들에게 척박한 지형에서 전투와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고, 나아가 이들이 미 육군 레인저 특수부대 훈련(미 조지아 주 위치한 포트 베닝 기지)을 받을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랄프 존슨 중위가 교관의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모습. 존슨 중위는 조지아 주의 무디 공군기지에서 근무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공군 장병들도 레인저 특수부대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공군 장병들이 레인저 특수부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한 성공적으로 훈련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군 레인저 부대 예비훈련 프로그램의 주임원사인 데릴 르부프 상사가 설명했다.

본 예비훈련 프로그램은 실제 레인저 특수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중생존 훈련, 정찰 임무, 화기 분리 및 조립, 무전 교신방법 및 주야간 항법 등 다양한 훈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또한 예비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엄격한 체력 검정 기준을 요구한다. 미 육군 레인저 특수부대 학교에 입교를 희망하는 공군 장병들은 5마일(약 8km)을 40분 이내 주파해야 하고, 2분 이내에 팔굽혀펴기 49회, 윗몸일으키기 59회 그리고 턱걸이 6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공군 장병들도 이와 똑같은 체력 검정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공군 장병들이 이곳을 마치고 레인저 특수부대 학교에 갔을 때, 어떠한 수준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알고,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르부프 상사가 덧붙였다. 특수부대 학교의 불합격률은 45%이다. 이는 약 절반가량의 교육생들이 중도에 낙오를 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러한 교육생들은 육 · 해 · 공군 각 군에서 이미 강한 체력을 갖추고 입교한 후보생들이다.

"미 육군 레인저 특수부대의 훈련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과정입니다. 레인저 특수부대원의 패찰을 얻기 위해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르부프 상사가 말한다.

공군에서 실시하는 예비훈련 프로그램은 포트 베닝 기지의 미 육군 레인저 특수부대 학교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본 훈련의 핵심은 사막 지형을 정찰하고, 뱀까지 잡아먹을 수 있는 강인함보다 고된 훈련을 통한 리더십 함양이라 할 수 있다.

"이 곳에서 저희가 진정 장병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부대 또는 조직의 리더가 되는 방법입니다." 훈련 교관인 세스 헌터 하사의 말이다.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장병들은 지휘 통솔력의 기본, 특히 피로하고 굶주렸을 때 동료들을 어떻게 통솔하는가를 배웁니다."

오늘날 현대 공군에서는 이러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공군 장병들이 전산망이 아닌 실제 전투 현장에 파병되어, 타 군 및 동료들과 함께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비훈련 프로그램은 공군 장병에게 레인저 특수부대 학교만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최신 정예 공군이 필요로 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곳의 훈련과정을 무사히 마치더라도 레인저 특수부대 학교에 합격이 자동으로 보장되진 않습니다" 헌터 하사가 말한다. "우리는 모든 교육생을 평가하고, 레인저 특수부대 학교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생을 선발합니다."

저조한 합격자 수가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준다. 공군의 예비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된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겨우 220명에 이르는 공군 장병이 레인저 특수부대 훈련 과정을 졸업하였다. 그러나 입교를 한 공군 장병의 훈련 이수율은 매우 높다.

"현재 공군은 약 90%의 레인저 특수부대 학교 졸업률 자랑합니다. 이러한 높은 수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예비훈련 프로그램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군 장병이 요구되는 모든 자격을 이곳에서 갖춘 후, 레인저 특수부대 학교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르부프 상사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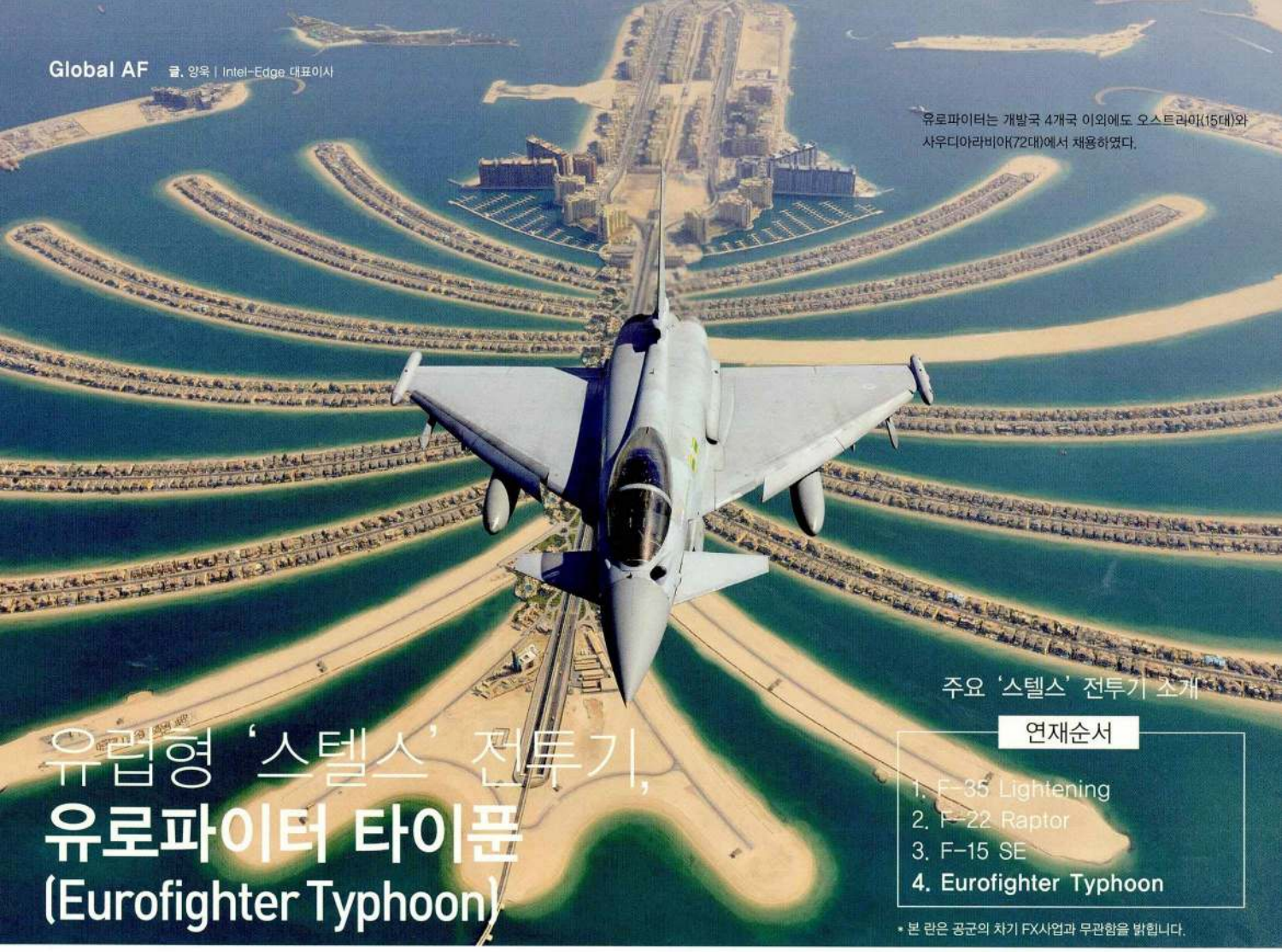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예비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은 레인저 특수부대를 희망하는 공군 장병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그 과정이 매우 고되고, 낮과 밤이 구분 없는 혹독한 일정의 연속일지라도 말이다.

"예비훈련 과정은 철저하게 엄격한 환경에서,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잠과 음식 때문에 고생을 참아내야 합니다." 현재 예비훈련 교육생 신분인 전술항공 통제관 에반 반하트 하사의 말이다. "그렇지만, 내 육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인간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면, 정말 레인저 특수부대 학교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레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 강인함과 인내력,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극한에 도전하고, 시험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훈련과정을 무사히 소화하기 위해선 모든 교육생이 앞서 얘기한 이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레인저 특수부대원 타이틀을 얻고 싶어 하지만, 극소수의 인원만이 이를 얻는다. 미 육군 전체에서도 약 1% 미만 정도가 레인저 특수부대원이다.

"레인저 특수부대는 매우 특별한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레인저 기장을 원하지만,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터 하사가 말한다. 존슨 중위는 자신이 바로 그 자격을 갖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는 예비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레인저 특수부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이다. 레인저 특수부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영예로운 특수부대원 기장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기장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닌 불굴의 결의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출중한 실력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 기장을 단다는 것은 미군에서 가장 뛰어난 정예 부대 "레인저"의 일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AF**

글. 양욱 | Intel-Edge 대표이사



유로파이터는 개발국 4개국 이외에도 오스트리아(15대)와 사우디아라비아(72대)에서 채용하였다.

주요 '스텔스' 전투기 소개

연재순서

1. F-35 Lightening
2. F-22 Raptor
3. F-15 SE
4. **Eurofighter Typhoon**

* 본 란은 공군의 차기 FX사업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유럽형 '스텔스'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 (Eurofighter Typhoon)

유럽은 비좁은 공간을 두고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싸움을 거듭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는 유럽연합을 구성하고 화폐까지 통일하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스핏파이어(Spit-Fire)와 메서슈미트(Messerschmitt) 전투기로 서로의 목에 칼을 들이대던 영국과 독일, 그리고 추축국樞軸國, Axis-Powers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싸웠던 나라들이 형성한 국제동맹을 가리키는 말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세 나라가 중심이었다.과 연합국을 오가던 이탈리아, 내전의 후폭풍으로 뒷짐지고 전쟁을 방관했던 스페인, 이렇게 색다른 4개 국가가 모여 최첨단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이다.

유럽에서 활발했던 전투기 공동개발

'신도 '필요' 와는 싸우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라도 필요하다면 뭉치는 것이 사회이다. 유럽의 전투기 공동개발은 역사 속의 숙적인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 고등전환훈련기를 만들고자 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개발 방향을 전환하여 장거리 차단 전투공격기를 개발했다. 1968년에 처녀비행에 성공한 재규어(Jaguar)는 프랑스에서는 미라주(Mirage) 전투기의 보조전력으로, 영국에서는 라이트닝(lighting) 및 팬텀(Phantom) 전투기를 보조하는 전투공격기로 1973년부터 배치되어 2006년까지 운용되었다.

재규어 전투기의 성공에 고무된 유럽 각국은 차츰 전투기 공동개발/획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1969년 프랑스는 서독과 함께 아음속 훈련기 알파제트(Alpha Jet)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영국은 서독 및 이탈리아와 함께 토네이도(Tornado) 전폭기의 개발에 착수했다. 토네이도 전폭기는 미 공군의 F-111 장거리 전투폭격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유럽의 전장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된 전투기였다. 가변익 주 날개나 2인승 기체라는 점 등 토네이도는 F-111의 철학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1970년대 후반, 영국(AST 403), 서독(TKF-90), 프랑스(ACT 902)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전투기 개발계획을 한 데 합쳐 ECA(European Combat Aircraft; 유럽형 전투기) 사업을 시작했다. 개발 초기에 각국은 독자 설계안을 개발하면서 ECA 구상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프랑스는 ACX 모델, 영국은 단발 경량전투기인 P.106과 쌍발 전투기인 P.110 모델, 독일은 기존의 TKF-90을 가다듬은 모델을 각기 제시했다.

복마전의 공동개발사업

그러나 1981년 ECA 사업은 위기를 맞이한다. 설계의 주도권을 주장하던 프랑스가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자 사업에서 탈퇴한 것이다. 또한 항공기 엔진을 두고

유럽의 하늘이 유럽기체가 지킨다는 사상 아래 등장한 것
이 바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이다.

유로파이터는 구소련 최강의 제공전투기 Su-27 플랭커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RB199를 선호하던 영국과 스네크마 M88을 선호하던 프랑스의 의견차이도 파경의 원인이 되었다. 결국 프랑스의 ACX 모델은 훗날 다소의 라팔 전투기로 태어난다.

프랑스가 빠져나가자 토네이도를 개발했던 역전의 멤버들(영국 BAe, 독일 MBB, 이탈리아 아에리탈리아 3개사)이 다시 모였다. 이들은 ACA(Agile Combat Aircraft; 기동 전투기) 사업을 제안하며 1982년 4월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ACA의 설계안은 영국의 P.110 모델에 기초했으며, 엔진은 롤스로이스 RB199를 선정했다. 이렇게 영국 주도로 사업이 바뀌자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는 예산배정을 거부했다. 결국 영국 국방성이 사업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참여업체가 부담하게 되었다. 영국 국방성은 1983년 5월 ACA 시범기체를 제작하는 EAP(Experimental Aircraft Programme; 시험용 항공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1983년에는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스페인의 5개국이 모여 FEFA(Future European Fighter Aircraft; 차기 유럽형 전투기 사업)도 시작되었다. FEFA 사업은 BVR 전투 능력을 가진 단거리 이착륙(STOL)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사업이었는데, 프랑스가 항모탑재용 기체를 고집하자, 영국, 서독, 이탈리아 3개국은 이 계획에서 탈퇴하여 결국 또 다른 유럽형 전투기 사업을 시작했다. 드디어 '유로파이터' 라는 정식명칭의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1985년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3개국 정부가 사업추진에 동의하자, 프랑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4개국 개발의 유로파이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상| 유로파이터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의 공동개발로 탄생했으며, 4개국을 합쳐 모두 62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 유로파이터는 초음속 기동을 위하여 델타익(삼각 주날개)을 채용하고 민첩한 기동을 위하여 카나드(귀날개)를 장착했다. **|하|** 유로파이터의 강력한 심장은 23,100 파운드의 출력을 자랑하는 유로젯 EJ200 터보팬 엔진 2대이다.

10여년의 험난한 개발

이렇게 유로파이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어떤 기체를 유로파이터로 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때마침 3년 전부터 추진되던 EAP 시제기가 출고되자 방향은 확실해졌다. EAP 시제기는 유로파이터가 원하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기에, 결국 EAP가 유로파이터 사업기종이 되었다. 유로파이터의 개발 및 제작을 위하여 합작법인인 유로파이터 GmbH가, 유로파이터용 엔진의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유로젯 터보 GmbH가 각각 설립되었다.

유로파이터의 앞날은 분홍빛이었다. 영국 250대, 독일 250대, 이탈리아 165대, 스페인 100대 도합 765대의 소요가 보장될 터였다. 하지만 1980년대말 냉전체제의 붕괴로 더 이상 바르샤바 조약군만 바라보고 전투기를 만들 수는 없게 되었다. 위협이 바뀌었으니 기체의 요구 성능도 바뀌어야만 했다. 게다가 사업의 주요파트너인 서독은 동독을 흡수 통일하는 덕분에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유로파이터 사업에서 탈퇴하는 것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로파이터는 꾸준히 개발이 진행되어 1994년 3월 DA01(개발기체 1호기)이 처녀비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감축되는 국방예산으로 인해 제작대수 조정은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95년 영국 250대, 독일 175대, 이탈리아 130대, 스페인 72대 등 애초보다 145대가 감축된 620대의 생산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대수를 줄이고도 독일 정부는 결정을 망설여서 겨우 1997년에서야 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

|01| 유로파이터는 슈퍼크루즈 기능에 고고도 작전능력까지 갖춘 우수한 최신예 전투기이지만, 스텔스 기능이 중시되는 21세기의 전투기 시장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품이다. **|02|** 유로파이터는 음성경고 및 명령기능에 다기능 헬멧시현기까지 갖추어 조종하기 편한 전투기를 지향하고 있다. **|03|** 유로파이터는 지난 3월 리비아 공습에서 최초로 실전에 투입되었다. **|04|** 유로파이터는 원래 제공전투기로 개발되었지만 다양한 공대지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멀티롤(Multirole) 전투기로 태어났다. 사진의 기체는 페이브웨이 II 레이저 유도폭탄 6발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하고 무장운용시험 중이다.

4.5세대 전투기의 완성형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소련의 고성능 제공전투기인 Su-27에 대항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목표는 서방 최고의 제공전투기인 F-15를 능가하는 성능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강조된 것이 기동성이었다. 이에 따라 유로파이터는 초음속 비행에 유리한 델타익을 채용하고 민첩한 기동이 가능하도록 카나드(귀날개)를 장착했다.

적기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날아가서 제압해야 하기 때문에 고성능엔진에 대한 열망도 강렬했다. 이에 따라 유로젯 EJ200 엔진 2개를 장착하여 개당 최대 23,100 파운드의 출력을 자랑한다. 여기에 더하여 F-22 랩터처럼 후연기 없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수퍼크루즈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우수한 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의 기본덕목에 해당한다. 유로파이터는 유로레이더의 CAESAR(캡터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의 개발에 성공하여 AESA 레이더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양산중인 트렌치2에는 여전히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PIRATE 적외선 탐지추적장치(IRST)와 PRETORIAN 자체방어시스템(DASS)이 더해져 적의 위협에 대한 탐지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유로파이터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조종편의성이다. 기체는 지상충돌이나 연료상태 등 긴급 상황을 음성으로 경고해줄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다중 디스플레이 등을 제어하는 DVI(Direct Voice Input) 시스템을 채용했다. '전자모자(The Electric Hat)'라는 별명이 붙은 HMSS(Helmet Mounted Symbology System; 헬멧 장착형 심볼장치)는 HUD가 아닌 조종사의 시야에서 다양한 정보를 시연함으로써 보다 뛰어난 상황인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첫걸음을 시작한 유로파이터

이렇듯 장밋빛 미래를 예고하고 실현해나간 유로파이터이지만, 오랜 개발기간으로 막상 실전에서 검증받은 기간은 짧다. 실제로 지난 3월의 리비아공습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첫 실전배치였기 때문이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슈퍼크루즈 능력이나 5만 피트 이상 고고도 작전능력을 갖추어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기체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제한된 스텔스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현대전에 전혀 손색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각종 첨단무장들과의 통합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본격적인 다목적 전투기로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유로파이터를 바탕으로 유럽의 각 운용국들이 얼마나 성공적인 전술을 개발하느냐가 미래 전투기 시장의 승자를 가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AF**

공군
IN

공군병, 그 자랑스런 뿌리

공군병 3기에게 들어보는 '그땐 그랬지'

공군병, 2011년의 자화상

700기 배출을 축하하며

* 기획특집

* 포토프레임@AF

* AIR FORCE MONTHLY

해맑은 어린이들의
순수한 동심 속으로

* Photo Sketch

68살의 신입생

* 생각하는 그림

'밥심' 이 곧 전투력이다!

* PhotoToon!

공군병 1기 에서 700기,

오늘의 공군을 만든 투혼 ①

공군병, 그 자랑스런 뿌리

격동의 창군기

오늘날 공군은 공군교육사령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예 공군병들을 키워내고 있지만, 공군 초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군병이 양성되었다. 당시 공군병 양성 과정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군병 배출의 모태가 된 학생항공연맹

조선항공건설협회(대한항공협회 전신) 산하의 학생항공연맹은 초기 항공병(공군병) 배출의 모태가 되었다[1][2]. 국내,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서 항공경험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 단체에 가입해 있었고, 공군은 향후 공군병 양성을 위해 이들 젊은이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공군창군 7인의 주역이 사병훈련 받고[3][4] 항공대를 만들자,
이에 고무되어 1기 및 2기 항공병에 입대한 젊은 항공인들

그리고 1차로 육군항공사령부 창설요원 105명을 과거 복무연한과 경험순으로 추리고 이들 중에서 조종, 통신, 정비 세 분야 위주로 유경험자들을 뽑았다[5]. 그 후, 항공대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김포기지에서 1948년 7월 22일, 김신, 장성환, 신응균 등 78명을 입대시킨다. 이들의 훈련기간 공식 계급은 이등병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공군병으로 양성한다기보다는 향후 공군의 중견간부로 만들기 위해 항공 유경험자를 대거 확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제2차 항공후보생 모집, 즉 2기 항공병 모집에도 항공경험자들 위주로 뽑았다. 1948년 9월 18일, 항공병 2기생으로 주영복, 장성태, 전봉희, 구선진 등 398명이 입대한다. 이들 중 김신, 주영복, 김두만 등은 조종사로서 공군참모총장까지 역임하였으니, 공군의 지도자들을 배출한, 항공병 1기와 2기의 독특한 특징이 되고 있다.

항공 무경험자, 당시로서는 높은 학력인 중졸 이상 요구. 항공병 3기부터 7기

3기부터 항공 무경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6]. 학력은 중졸이상으로 당시로서는 높은 학력을 요구하였다. 주로 공군본부에서 일괄해서 뽑기도 했지만, 공군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경우도 있었다. 1949년 2월 15일, 항공병 3기생으로 327명이 입대한다. 국사, 국어, 영어, 상식 등 시험을 치러[7] 성적순으로 뽑았다. 훈련은 항공기지사령부 기지부대 내의 신병교육대에서 했으며, 4주 동안 제식훈련, 학과교육 등의 훈련을 받았다. 4기의 경우 340명으로 동년 6월 13일, 5기는 252명으로 동년 8월 9일 입대, 6기는 230명으로 동년 8월 24일 입대하고 공군본부에서 모병을 직접 관장하였다. 항공병 7기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고, 각 부대에서 추천서를 통해 모집하였다. 교육기간은 40일이고, 교육과목은 군사학, 암기과목, 집총훈련, 제식훈련 등이었다.

비행장 보수요원 확보 위해 전쟁 중 현지입대

예나 오늘이나 공군병들의 학력은 높은 편이지만, 당시에는 초등학교 졸업자들도 일부 입대했다. 6 · 25전쟁 당시, 기지 현지에서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거, 비행장 보수요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징용대상자들 중에서 공군병들을 차출한 것이다[8]. 이는 당시, 사천기지에 있었던 제1전투비행단에서 기지 시설보수를 위해 초등학교 졸업 이상 농업에 종사하던 신체건강한 병을 선발한 것으로 이들은 비행장 시설보수에만 종사했다.

사진설명

① L-4 연락기의 시동거는 모습
② 1949년 6월 13일 항공병 4기생 서창보(徐昌普) 외 339명이 항공부대에 입대하였다. 사진은 항공병 4기생들의 입대 사진. 항공병 4기생 입대 후 기념촬영
③ 1950년대 대구 공군병원에서 입대장병 등이 시력측정, 엑스레이 촬영, 의료상담 등 신체검사하는 모습
④ 항공병 4기생 앨범사진
⑤ 1953년 9월 18일 항공병 2기생들이 입대 5주년을 맞아 기념촬영한 모습. 항공병 2기생은 공군 독립 이전인 1948년 9월 18일 나창준(羅昌俊) 외 397명이 입대하였다.
⑥ L-4 연락기의 프로펠러를 정비하는 공군병의 모습
⑦ 1971년 6월 교육사령부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⑧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는 공군병의 모습

#2 그리고 6 · 25전쟁

공군 헌병대원[9]들 북한군 조종사를 사살하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전면 남침으로 서울은 3일 만에 적의 수중으로 떨어졌다. 6월 27일, 공군비행단에서는 21대의 항공기를 수원기지로 이동시켰으며, 비행부대의 정비사를 비롯한 후방요원들도 김영재 소령의 지휘 하에 10여대의 트럭으로 무기와 병력을 싣고 철수[10]했다. 이 와중에 김포기지에서 최초교전이 있었다. 당일 김포기지에 북한군의 전투기 Yak기가 격추됐는데, 공군 헌병대원들은 북한군 조종사와의 교전 끝에 그 조종사를 사살하였다[11].

공군 헌병대, 여의도기지 탈환작전

공군 전 부대가 수원기지로 이동한 상태에서 7월 2일 야밤, 30명의 헌병요원들로 구성된 헌병특공대는 수원을 출발, 미명을 기해 여의도 비행장 탈환작전을 감행했다. 이에 비행장에 주둔 중이던 북한군 1개 중대를 격퇴하는 전과를 올렸다[12]. 북한군을 퇴각시킨 후 여의도 기지 내에 태극기를 게양했지만, 육군 지원병이 오지 않고 적의 포사격에 의한 반격이 시작되자 눈물을 머금고 다시 후퇴하였다.

서울수복과 북진 당시 공군병들의 활약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공군 헌병대 60여 명이 미군과 합동작전으로 육군보다 먼저 서울로 진주하였다[13]. 북진을 하면서 적의 비행장들을 접수하고, 공군 헌병대는 비행장 경비, 적 공군 정보 수집, 치안질서 확립 등의 활동을 펼쳤다.

1 · 4후퇴 이후 공군 조직 재정비와 진해기지 확장에 참여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다시 밀리면서 공군도 후퇴하였다. 공군은 1951년 1월초까지 서울, 대전, 대구 등으로 철수하면서 공군조직과 기지의 재정비에 주력하며 장기전에 대비하기 시작한다. 전투조종사 양성과 전술전기 연마에 힘썼고, 파견된 정찰정비대는 육군의 각 군단을 지원했다. 또한 전투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기지에 백구부대를 창설하는 등, 역동적인 공군 재정비 작업에 공군병들의 활약이 컸다[14]. 특히 1951년 7월, 진해기지 활주로를 확장하는데 많은 공군병들의 수고가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군 첩보작전에 활약한 공군병들

공군첩보요원들은 전쟁 기간 중 비행기 탈취작전, 적 후방 파괴 및 교란작전, 기습작전, 해상작전, 북한군 항공대 각종 문서 획득 등 다양한 첩보작전을 펼쳤다. 안타깝게도 첩보작전을 전개하면서 공군병들의 희생이 다수 있었다. 특히 서해안 초도, 무도, 석도, 연평도 등지에서 북한군 귀순병들을 유도해내는 작전을 펼치다가 유찬상 이등병 등이 전사했다[15]. 또한 북한의 Mig15기 조종사 생포작전을 펼치다가 윤봉이 이등병이 전사하기도 했다[16].

Mig-15기 부품을 빼내다

1951년 4월 17일, 추락한 Mig-15기 주요 부품을 빼오는 작전에 9명의 병사들이 투입된다[17]. 대원들을 실은 C-119를 엄호하기 위해 F-51, F-80, F-82, F-84 기종 등 80여 대가 동원되었다. 이들은 적지에 추락해 있던 Mig-15기에 접근, 2시간에 걸쳐 주요 부품을 뜯어내어 이를 H-19헬기에 싣고 탈출하였다[18]. 이 과정에서 북한군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연합군의 80여 대의 엄호기들이 쉴 새 없이 대지공격을 하였다. 이 와중에 윤하의 하사는 이마에 총탄을 맞고 전사하였다[19][20]. 이 작전의 성공으로 미군과 연합군은 Mig-15기 부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Mig-15기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전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공중전에서 전세를 역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북한군 T-34전차 부품 노획

T-34 북한군 전차는 국군의 직사포탄이나 미 공군기의 5인치, 2.75인치 로켓탄에도 끄떡없었다. 북한군에 밀려 낙동강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전투가 치열할 때, T-34전차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적 전차의 장갑부품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다. 당시 윤일균 중위, 김원생 하사, 이기옥 일병 등 7명의 대원은 피아간 중간지점에 고장 나 멈춰 서 있는 T-34에 접근해 스페어 해치 등 장갑부품을 뜯어가지고 귀환하였다. 이 분석으로 T-34에게는 네이팜탄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항공기에 의한 적 전차공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진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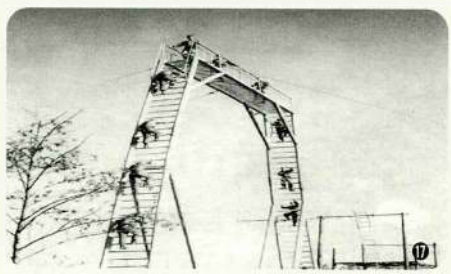
⑨ 교육사령부 신병들이 제식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⑩ 항공1주년 기념식에서 항공병 3기생들(1949년 2월 15일 신균주(申均柱) 외 325명 입대)이 C-47 수송기 앞에서 기념촬영한 사진. 항공부대는 1948년 5월 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에 조선경비대 제1여단 사령부 통위부(統衛部) 직할부대로 창설되었다.
⑪ 1952년도 대전기지 항공병학교의 정문 모습
⑫ 6 · 25전쟁 중 F-51 100회 출격을 기념하며, 항공기에 보라매를 그리는 모습
⑬ 공군의 각종 특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1956년 8월 1일부로 대전기지에 공군기술교육단을 창설하고 대전기지의 통신전자학교, 항공병학교와 김해기지의 기술학교 등 3개 학교를 공본직할에서 기술교육단 예속으로 변경하였다. 사진은 대전기지 주둔당시 기술교육단 항공병학교에서 신병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일자 미상)
⑭ 1972년 11월 6일 대전기지 기술교육단 기지극장에서 거행된 72-11차 항공병학교 신병 입교식
⑮ 공군 사병에 지원한 지원자들이 1982년 8월 9일 모병시험을 보고 있는 모습

통신 및 기상 업무의 구축

1951년 2월 1일, 장교 23명, 병 128명이 통신 병력으로 증강됐다. 이에 힘입어 공군본부, 진해, 제주 모슬포, 부산, 대전, 사천 등 7군데에 통신파견대가 운영되었다[21]. 여기에는 항공통신 유경험자들인 40여 명의 제1기 항공병들의 역할이 컸다.

공군군악대 창설의 주역, 공군병 14기와 15기

공군에 전투기도 없던 6.25전쟁 초기, 군악대의 창설은 사치스러운 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군악대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신동우 중령은 은밀하게 창설준비를 진행하였다. 초기 공군군악대원으로 경찰군악대원들을 모셔온(?) 사건은 드라마틱하다. 공군군악대를 준비하던 정서봉, 김경오 하사 등은 지리산경찰 군악대를 찾아가 8명을 트럭에 태워 공군에 입대시켰다[22]. 후에 치안국이 이를 문제를 삼았지만, 이들은 이미 공군입대절차를 마친 뒤였다. 치안국의 의뢰를 받은 공군헌병대가 이들의 군입대사실을 조사했지만, 결국에는 잘 무마되었다. 이렇게 해서 공군군악대가 편성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초기 공군군악대는 현종건 이병 등 40여 명의 공군병 14기와 김정범 이병 등 10여 명인 공군병 15기가 주축이 되었다[23].



사진설명

⑰ 항공병 신병이 담력배양대에서 유격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⑱ 화기학 교육을 받고 있는 신병들
⑲ 군악대 기념식 행사 후, 군악행진

#3 공군병, 길이 이어질 자부심

오늘날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공군의 면면에는 60여 년간 700개 기수, 50여 만 공군병들의 피와 땀이 오롯이 담겨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군병 선배들은 해방과 분단, 전쟁으로 이어지는 극한 상황에서 국가재건과 공군초석을 다지는 삶을 택했다. 그것은 지난(持難)한 시절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도정이기도 했다. 오늘날 공군병인 여러분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미미한 것들이 모여 최강의 공군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힘은 정말 필요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 또한 진정한 자부심은 거창한 임무수행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숨겨졌던 자아의 재발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선배들의 눈부신 활약을 참고하면서 공군복을 입고 있는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AF**

1) 윤일균 장군 증언,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576쪽
2)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576쪽
3)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26쪽
4) 김정렬, 『金貞烈回顧錄』 을유문화사, 1993, 91쪽
5)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35~36쪽
6)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532쪽
7)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539쪽
8)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537쪽
9) 공군 헌병대는 1950년 1월 5일, 육군으로부터 장교 5명, 부사관 및 병 23명을 전입시켜 창설되었다.
10)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147쪽
11) 김득룡 장군 증언,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208쪽
12)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690~691쪽, 697쪽, 698쪽, 702쪽
13) 곽정수(1965년 당시 대위) 증언,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339쪽
14)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351쪽
15)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604쪽
16) 김의래(1965년 당시 상사)의 증언,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600쪽
17) 윤일균(1967년 당시 준장)의 증언,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572쪽
18)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592~593쪽
19)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593~595쪽
20) 윤일균의 증언,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613쪽
21) 『6 · 25戰爭證言錄』, 공군본부, 2002, 657~663쪽, 685쪽
22) 『공군군악사』,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08, 76~80쪽
23) 『공군군악사』,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08, 92~95쪽

공군병 1기에서 700기,

오늘의 공군을 만든 투혼 ②

공군병 3기에게 들어보는 '그땐 그랬지'

지난 4월 8일, 공군병은 700기 시대를 맞았다. 약 60년 만의 일이다. 그 옛날, 초창기 공군병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초창기 공군역사의 산증인인 공군병 3기생 공군의 공식적인 인사기록 상, 항공병 3기는 공군병 3기로 기록되어 있다. **들로부터 들어본다.**

김동흡

01 현재 공군병장의 월급이 대략 10만원이라고 합니다. 60년 전 당시, 공군병의 월급이 얼마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문응진 그때는 화폐기준이 '원'이 아닌 '환'이었어. 쌀 한 가마니가 5천환이었으니까. (현재 20kg 쌀 한가마니의 가격은 15만원 정도이다.) 하여간 극장가고, 이발하고, 목욕하면 돈이 거의 다 떨어졌었어.

김동흡 월급은 아마도 2~3천환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

문응진

02 월급이 그 정도였다면, 그 당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군대의 식단은 어떠했습니까?

문응진 1년 열두 달, 콩나물국과 밥, 김치가 나왔어. 그 이상의 반찬은 상상하기도 힘들었지. 그 당시 GDP가 70불이었으니, 지금과 비교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지. 그런데 그때는 군대가 사회보다 훨씬 좋았어. 삼시 세끼를 제때 먹을 수 있었으니까.

03 그렇다면 당시 군복은 어떠했나요?

문응진 푸석푸석한 밧줄 만들 때 썼던, 감색 마대자루 원단으로 군복을 맞췄어. 요즘엔 군복에 줄을 잡지? 그 옷은 하도 까칠거려 그렇게 하기 힘들었어.

김동흡 처음 왔을 때, 미군으로부터 군용품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 허나, 군화는 내 발에 너무 커서 결국 하나 사 신었어. 코트도 그네들 사이즈를 주니, 한국인들에게 맞기나 하나. 질질 끌고 다녔지 뭐.

04 다음은 훈련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때 훈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문응진 생각하는 것만큼 난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당시 선배들보다 우리들이 학력이 더 좋았거든. 그때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드물었으니까. 내 생각인데, 선배들이 우리를 부담스러워 했던 것 같아.

김동흡 우리가 최초로 공개적으로 모집한 기수라오. 그러니 훈련이 체계가 잡힐 일이 있나. 지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

05 체력단련을 위해 어떤 운동을 즐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동흡 배구선수를 했었어. 하지만 자주 하지는 못했어. 공을 구하기 힘들었거든. 기껏해야 도수체조나 하고 그랬지.

문응진 나는 주로 구보를 했어. 연병장이 넓어서 뛰기는 참 좋았던 것 같아.

06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인의 가장 큰 즐거움은 휴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휴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응진 휴가가 없었어. 대신 제한적으로 외박만 있었지. 토요일에 나가서 일요일에 들어오곤 했어.

김동흡 두세 명이 옹기종기 모여 영화보고, 사회구경하고 점심 한 끼 하고 그랬지. 유일한 낙이었어.

07 현역 장병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김동흡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공군의 필승정신을 발휘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열중했으면 좋겠어.

문응진 공군은 기술군의 특성이 있어. 자부심을 가져. 아무나 되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분야의 전문성을 찾아서 공군발전에 일조했으면 좋겠어.

약 1시간 동안, 선배들은 각자의 세월을 추억하며, 열변을 토하는 진지함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인터뷰를 하면서 선배들이 청춘을 보냈던 그 시기와 지금과는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나이를 먹어도 선배들이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군인의 자부심과 정신이 아닐까. AF

 글. 편집실 사진. 상사 한정근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공군병 1기에서 700기, 오늘의 공군을 만든 투혼 ③

공군병, 2011년의 자화상

살랑거리는 바람에 벚꽃잎이 하늘에 날리는 4월의 어느 봄 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으로 향했다. 1948년에 입대한 공군 3기생 인터뷰에 이어 2010년에 입대해 항공 정비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공군병 691기 김성대, 김성두 일병을 만나보기 위해서다.

김성대, 김성두 일병은 형제이다. 그것도 쌍둥이다.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잠시 학교가 달라서 이별을 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대학교도 같은 학교다. 심지어 전공까지. 이 정도면 서로 지겨울 법도 한데 한술 더 떠 공군에도 동반입대했다. 같은 대대에 같은 생활관, 다행인지 불행인지 생활관 호실만 달랐다. 다른 게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서로의 안경테가 달랐다. 쌍둥이 형제를 구분하기가 어려워했던 주변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지난 휴가 때 다른 색의 안경테를 맞추게 되었단다.

두 쌍둥이 형제가 닮은 것처럼 3기생과 691기생은 공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6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은 두 기수에게 서로 다른 군생활의 기억을 갖게 했다. 3기생 인터뷰에 이어 691기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같으면서도 다른, 다르면서도 같은 두 기수의 군생활 모습을 그려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형제가 쌍둥이라는 것과 공군병 691기로 공군에 입대했다는 것을 제외하곤 정보가 많지 않네요. 자기 소개를 부탁합니다.

김성대 일병 나이는 22살이고, 축구를 좋아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동생도 함께 축구를 했나요?

김성두 일병 네. 형은 오른발잡이어서 라이트 윙에서 뛰었고 저는 왼발잡이어서 레프트 윙을 담당했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공군병 700기가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훈련 당시의 기억은?

김성대 일병 화생방 훈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스를 마셔 호흡이 어려워도 훈련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 동기들과 함께 어려움을 참아내고 끝까지 버텼던 것이 뿌듯했습니다.

김성두 일병 동기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즐거웠고 인간관계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쌍둥이인데다가 공군에 같은 기수로 입대하여 같은 부대, 같은 대대,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는데 가끔 서로 지겹지 않나요?

김성대 일병 네. 서로 지겹지 않습니다.

김성두 일병 저도 마찬가집니다. (...)

쌍둥이 형제가 동시에 공군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김성대 일병 6주마다 2박 3일간의 외박을 나갈 수가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고요. 신사적이고 엘리트 군의 이미지가 좋아서 공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큰 형이 작년 4월에 입대해서 전역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같이 입대와 전역을 해서 미래를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성두 일병 지원할 때 고등학교 성적, 면접, 그리고 체력 테스트를 통한 선발과정이 타군과 차별화되었고, 모든 관문을 통과한 지 · 덕 · 체를 갖춘 사람만이 공군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둘 다 합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나요? 혹시나 한 명만 합격하고 다른 한 명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지?

김성대, 김성두 일병 무조건 같이 입대하려고 비록 한 사람만 합격하더라도 시기를 조절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동시에 합격했고, 그 전에는 합격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형제라서 같은 곳에 배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나요?

김성대 일병 쌍둥이 형제가 모두 같은 곳에 배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김성두 일병 훈련단 성적과 특기 교육 성적을 바탕으로 지원하여 배속지가 결정됩니다.

다음 휴가는 언제인가요? 휴가도 함께 맞춰서 나가나요?

김성대 일병 다음 휴가는 5월 19일입니다.

김성두 일병 여기에서 1시간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집에 갈 수 있어서 형과 함께 휴가를 맞춰서 나갑니다.

군 복무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나요?

김성대 일병 군복무를 통해 그전에 비해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해 부대 내에서 단독군장을 하고 다니며 전시에 버금가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회에 있었다면 무심결에 지나쳐 버렸을 일을 군에 있음으로 인해 나라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두 일병 20년간 나 혼자만 알고 생활해 왔었는데 군대 오고 난 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많을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군대에 오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을 했다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대대 생활은 어떻나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김성대 일병 주로 KF-16 비행 지원을 합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7시 30분에 출근을 합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그날 그날 비행스케줄에 따라 다릅니다.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 아닌가요?

김성두 일병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 6주간 교육을 받고 실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매일 매일 배워나가며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군에 와서 잘했다고 생각했던 적은?

김성대 일병 6주마다 외박을 나갈 때와 신식 생활관에서 침대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만족감을 느낍니다.

김성두 일병 일과시간 이후에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헬스장, 독서실, 당구장, 노래방 등의 편의시설들도 마음에 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계발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반대로 공군에 와서 후회했던 적은?

김성대 일병 지금까지는 없는데,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타군에 비해 군생활을 좀 더 오래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합니다.

공군 입대에 대해 부모님의 반응은?

김성두 일병 집과 가까운 부대에 그리고 형제가 같은 곳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현재 꿈이 있다면?

김성대 일병 현재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분야에 서적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지식과 경력을 쌓아 IT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김성두 일병 역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꿈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김성대 일병 성공했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많이 접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선수인 박지성이 쓴 책을 읽으며, 자기 자신을 담금질하는 과정을 잘 이겨냈던 모습이 감동적이었고 항상 경기전에 '나는 항상 최고다' 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성두 일병 증권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금융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F**

 글. 편집실 사진제공. 이중근, 조훈현, 박철순, 박현빈, 조인성

공군병 1기에서 700기,

오늘의 공군을 만든 투혼 ④

700기 배출을 축하하며

지난 4월 8일, 입대 후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공군병 제700기가 탄생하였다. 해방 이후 6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공군 발전에 초석을 담당했던 약 50만 명에 달하는 공군병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 각 계각층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의 주역이 될 현역 공군 병사들에게 예비역 공군 선배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축/하/메/시/지

이중근 |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회장, 부사관 16기

친애하는 공군 장병과 예비역 여러분!
공군병 700기 수료를 공군인터넷전우회 전 회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48년에 어려운 여건에서 1기로 시작된 공군병은 어언 700기가 수료하는 경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공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많은 공군 선후배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군병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의 기초가 됩니다.
앞으로도 항공우주시대를 주관하게 될 「선진 정예화된 강한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되어 주실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공군병 700기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무궁한 발전과 장병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박 철 순

기업인, 전 야구선수, 공군병 265기

공군은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약했던 청년시절과 무분별한 행동, 허약했던 정신 상태와 몸을 바로 잡아주고 바로 세워 주었습니다. 공군입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박철순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혹독했던 추운 겨울날 대전 온양훈련소가 생각이 납니다. 무서웠던, 때론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교관님들이 그립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거품 물고 뺑뺑이 돌던 사격장 생각도 납니다.

대한민국 공군장병 여러분! 자랑스러운 공군병 265기 박철순입니다. 요즘도 길을 걷다 공군군복을 입은 여러분들을 보면 자랑스럽고 멋있어서 어깨를 두드려 주고는 합니다.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복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와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이 되어 주십시오.

조 훈 현

바둑기사, 공군병 237기

1972년부터 만 3년 동안, 공군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부대를 돌아가면서 복무했지만 가장 오래 근무한 부대는 당시 서울 대방동에 위치했던 공군대학이었죠. 내게 있어서 공군이란 역시 군인정신을 배웠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겨야 한다는 필승 정신은 끈기를 심어주었고, 당시 군에서 자연스레 익힌 승부욕은 전문기사 생활을 하던 제게 강인한 승부욕을 일깨워 주었죠.

1962년 아홉 살 때 프로입단에 성공한 후, 63년 일본 유학을 떠났어요. 군복무를 위해 1972년도에 귀국했죠. 소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한국어보다 일본어가 편했고, 어눌한 한국말은 낯선 군대 생활의 적응에 가장 큰 고초로 다가왔죠. 익숙하지 못한 한국어 때문에 말이 헛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웃음거리가 된 적도 다반사였으니까요. 군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들도 모두 언어에 관련된 일이었어요. 점호 때 당직사관이 '군인의 길'에 대해 물으면서 나를 툭 쳤는데, 그것을 못 참고 '왜 때려'를 외쳐 군장을 쌌던 일이 가장 생각나고, 경례구호였던 '충성'을 잘못 발음해 '칠성'이라고 했던 일도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대한민국 남아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는 것이니만큼, 긍정적인 마인드로 군 생활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군 생활을 하다보면 괴로운 일도 있겠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승부사로 살아가고 있는 제게 공군 생활에서 익혔던 필승 정신은 내년이면 육십을 바라보는 장년의 나이에도 현역에서 활약할 수 있게 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박 현 빈

가수, 공군병 573기

공군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게 한 곳입니다. 저는 입대 전 성악을 전공해 공군 군악대 성악병으로 복무했었죠. 그때 성악이 아닌, 다른 장르의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군 생활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것이 있다면 복무 중, 애국가를 무척 많이 불렀습니다. 공군이 다른 군에 비해 복무기간이 길지만, 그만큼 자기계발과 자신을 위해 생각할 시간이 많습니다.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 인 성

배우, 공군병 675기

공군병으로 입대하여 공군에서 내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군 생활 중에 격오지 순회 연주를 통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영공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근무를 하는 장병들과의 소중한 만남이 기억에 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인 공군 정예장병으로서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글. 편집실 사진. 이재호 | 공군본부 비서실

국회 정책세미나 참석

참모총장은 4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학송 의원 주최로 개최된 공군력 건설 관련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국방을 논함에 있어서 자군 이기주의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심 없는 의지와 강한 책임감만이 있을 뿐"이라며, "새로운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과 의지를 구비하는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국제항공전 MOU 체결

참모총장은 4월 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일행을 예방하고 경기국제항공전 관련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참모총장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경기국제항공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군도 적극 성원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공군과 경기도 간의 협력을 통하여 경기국제항공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상을 구현함으로써 민 · 관 · 군이 상생 ·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美태평양 공군사령관 접견

참모총장은 4월 12일, 美태평양 공군사령관 게리 노스(Gary L. North) 대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美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그동안 한 · 미 공군간 연합 연습/훈련은 연합전력 운용을 극대화하여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왔으며, 향후에도 한 · 미 공군간 연합 연습/훈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1-1차 고등비행교육 수료식

참모총장은 4월 13일, 제1전투비행단에서 고등비행 수료식을 주관하고 신임 조종사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먼저, 항재전장 의식을 견지한 가운데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강의 전사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미래전장에 부응하고 공군의 핵심리더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학습과 자기계발에 매진할 것이며, 중요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인 「초심, 열심, 뒷심」을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R FORCE MONTHLY

2011. 05. NEWS

적 핵심 군사시설 강타, 초전에 끝낸다 !

대규모 종합전투 훈련(Soaring Eagle) 실시

작전사령부 직할 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는 4월 11일부터 21일까지 전시에 적의 공중침투를 저지하고, 적의 핵심 전력과 목표물을 궤멸시키는 종합전투 훈련인 『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했다.

블랙이글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로 화려하게 부활!

블랙이글스는 4월 1일, 제8전투비행단에서 역대 블랙이글스 조종사 35명과 방위사업청, KAI, 블랙이글스 동호회 등 군 · 민간단체의 주요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일환 참모차장 주관으로 『블랙이글스 T-50B 전력화 행사』를 가졌다. 블랙이글스는 2007년 10월 서울 에어쇼에서 당시 운영기종이던 A-37의 고별비행을 끝으로 잠정 해체된 이후, 국산초음속 훈련기 T-50으로 기종을 전환하여 1전투비행단에서 비행훈련을 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블랙이글스 전용 T-50B 항공기는 검은색과 흰색, 노란색을 조합하여 날카롭고 역동적인 독수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2009년 4월 공모를 통해 현재의 외부 디자인을 확정하였으며, 작년 5월부터 1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새롭게 진용을 갖췄다. 이에, 블랙이글스팀은 작년 12월 모기지인 8전투비행단으로 전개하여 항공기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동을 개발하고 완성시킴으로써 화려하게 부활하게 됐다.

블랙이글스는 올해 '서울 ADEX 2011'(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사천 항공우주 엑스포' '공군 Space Challenge 대회', '해운대 모래 축제', '부산 바다 축제' 등 각종 국가행사에 참여해 특수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美 공군 조종사의 생명도 우리의 몫!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생환 및 산악구조 훈련 실시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지난 18일, 산악지역에 조난된 조종사를 구조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한 · 미 연합 생환 및 산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 소속 생환교관들이 직접 침투조와 조난조로 훈련에 직접 참가했다. 이들은 항공구조사들과 함께 적 감시망을 피해 조난자에게 침투하는 역할과 적의 감시망으로부터 도피, 탈출하며 구조대와 접선 생환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이번 훈련을 통해 항공구조사들은 미 공군 생환교관들에게 한국 지형에 맞는 생환법을 전수하고, 미군의 생환법이나 전술이동 등을 배우기도 하며 상호구조능력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침투조 역할로 참가한 미 8전투비행단 소속 공군 마르티네즈 하사는 이번 훈련에 대해 "유사시 미 공군 조종사도 구출하는 항공구조대원들인 만큼 연합 구조작전의 세부절차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구조사들과 함께 훈련하며 험난한 한국 지형을 익히고, 한국 공군의 독자적인 생환법을 배우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軍에서 배운 효도를 실천에 옮겼을 뿐입니다."

제2방공포병여단 이종규 상병, 간암 투병 아버지께 간 이식

제2방공포병여단 이종규 상병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이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상병은 지난 3월 21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자신의 간 70%를 아버지에게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이 상병의 아버지인 이형기씨는 지난 2008년 간암 진단 후, 1차 수술해 치료하였다. 하지만 2010년 10월 간암이 다시 재발해, 유일한 치료방법은 간 이식 수술뿐이었다. 이에 이 상병은 기꺼이 자신의 간을 아버지께 이식하기로 결심했고, 간 이식 수술 적합성 판정을 받아 5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아버지께 성공적으로 간 이식을 하게 됐다.

박종헌 참모총장은 이 상병에게 격려서신과 격려금을 보내 "부친께 간 이식을 통해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반포지효(反哺之孝)를 몸소 실천한 이 상병의 효행을 접하고 대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며, "효행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부친께서는 듬직한 아들을 두어 누구보다도 행복할 것"이라며 "쉽지 않은 결단으로 효행을 실천한 것에 공군인 모두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 번 치하한다."고 전했다.

7개의 물줄기가 이루는 환상의 팀워크!

제15혼비, 관 · 군, 한 · 미 합동 · 연합 소방훈련 실시

제15혼성비행단은 4월 13일, 기지 내 영외 탄약고에서 부대 인근 지역 5개 소방서(성남, 분당, 강남, 서초, 미군)와 합동 · 연합으로 차량 11대와 소방인원 134명을 동원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대규모 관 · 군, 한 · 미 합동 · 연합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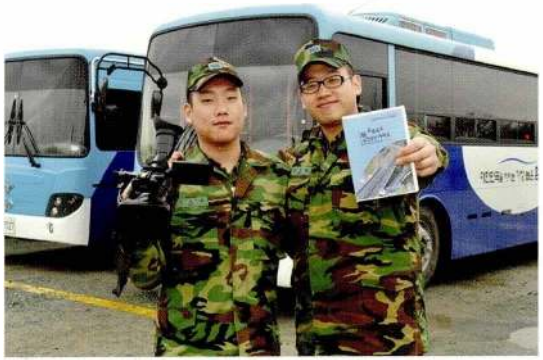
이날 훈련은 영외탄약고에서 탄약에 원인 미상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제15혼비 소방중대는 물론 민간 소방서 4곳이 합동으로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제15혼성비행단은 인근 소방지원기관과의 상호 소방지원체제를 확립해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재난대응태세 유지 및 절차를 숙달하였다.

이번 훈련을 담당한 시설대대장 박종원 중령은 "부대의 탄약고 화재발생시 부대원 및 인근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신속한 진압이 요구된다."라고 말하며 "관 · 군, 한 · 미 합동 소방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화재로부터 제15혼비 전투력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속도로 운전교육, 대대원이 직접 만든 영상교재로!

11전비 수송대대, '고속도로 안전운전가이드' 영상교재 제작

11전비 수송대대 장병들이 '고속도로 안전운전가이드' 영상교재를 직접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안전운전가이드'는 고속도로 운행 시 숙지해야 할 사전지식과 실전적 노하우를 쉽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는 영상교재로, 11전비 수송대대 장병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으로 구성되었다.



11전비 수송대대는 '안전운전가이드'를 새내기 운전병을 위한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인트라넷에도 탑재해 수송대대원 외에도 11전비의 모든 장병들이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공군본부 수송과를 비롯한 전국의 각급 공군부대 수송부서 31곳에 '안전운전가이드'를 배포하였다.

11전비 수송대대에서 운전병으로 활약하며 '안전운전가이드'를 만들어낸 손호준 상병과 정승택 상병은 "후임 운전병들과 기타 많은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우리 손으로 직접 제작하였다는 데서 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낀다."며, "군이라는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적성과 관심을 살려 영상제작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대장님과 병영문화예술체험사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작전기상예보 발전방향, 민 · 군이 함께 모색

73기상전대, 한국기상학회 주최 기상기술분과 학술대회 참가

제73기상전대는 공주대, 국립기상연구소, 기상청 등 기상기술분야 연구 기관과 선진 기상기술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군의 작전기상예보 지원능력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공주대학교에 열린 「2011년 한국기상학회 기상기술분과 봄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변희룡 한국기상학회장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45편의 연구과제(구두발표 20편, 포스터 발표 25편)가 발표되었다. 73기상전대는 2~4편의 과제를 발표했던 전년과 달리 '영동지역 폭설 연구', '공군의 수치예보 시스템 소개', '공군 레이더 운영 및 군 작전 활용' 등 예보 정확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이례적으로 총 7편을 발표했다.

한국기상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종석 73기상전대장은 축사를 통해 "73기상전대는 육 · 해 · 공군 작전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기상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작전기상 연구분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발표된 연구결과를 실용화하기 위해 민간기관과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종사의 건강관리, 민간병원도 돕는다!

항공우주의료원, 삼성서울병원과 협력병원 합의서 체결

항공우주의료원은 4월 15일, 공군 장병과 가족들의 진료 기회를 확대하고, 항공우주의학 분야의 발전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특히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최상의 건강상태가 요구되는 조종사들이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정밀 진단과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조종사들은 주로 군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양 기관의 의료지원 협약에 따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건강관리(Total Care System)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역 장병들과 군무원, 군가족들도 1차 진료를 받은 뒤 필요할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항공우주의료원장 임정구 대령(진)은 "조종사를 포함한 공중근무자들의 건강관리에는 항공우주의학적 평가가 중요한 만큼 양 기관이 이 분야를 연구하는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인 삼성서울병원과 긴밀한 대외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의료복지혜택을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 · 전자 장인교육의 산실

항공과학고, 마이스터고 지정!

군 유일의 중등교육기관인 항공과학고등학교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마이스터(Meister)'는 독일어의 '장인' '명장'을 일컫는 말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다.

항공과학고는 2010년도 마이스터고 신청 시 각종 난관에 부딪혀 안타깝게도 지정이 보류됐지만, 동문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직원들의 강력한 의지로 마이스터고 T/F를 구성해 산업체와 연계한 획기적인 교과 운영 프로그램 개발, 산 · 학 · 관 유기적인 협의체 구성 운영 등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종 선정을 받는데 성공했다.

항공과학고등학교 김성곤 교장은 "앞으로 산 · 학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맞춤형 현장 기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마이스터고로 육성하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며 "항상 꿈과 비전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교직원 모두의 아낌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룡대에 울려퍼진 봄의 선율!

공군본부 본청 옥상에서 이례적으로 '새봄맞이 미니콘서트' 열어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은 4월 4일, 박종헌 참모총장 및 부실단장을 비롯한 공군본부 소속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봄맞이 미니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미니콘서트는 지난 한달 동안 KR/FE 연습과 중앙보안감사 수감에 수고한 공군본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장병들이 점심 식사 후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계룡대 본청 옥상에서 작은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미니콘서트는 색소폰 솔로, 중창 등 공군군악대 스윙밴드의 봄노래 메들리, 봄맞이 시 낭송(창공클럽 회원 신수현 시인) 및 오카리나 연주(한국 오카리나 협회 박봉규)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이 봄의 정취에 흠뻑 젖을 수 있는 공연 분위기를 연출했다.

 글. 편집실 사진. 3훈비, 5비, 18비 정훈공보실

공군참모총장배 Challenge 2011

가족과 함께하는 스페이스 챌린지 2011

해맑은 어린이들의 순수한 동심 속으로

제33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1 대회가 지난 4월 9일 지역예선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약 두 달 여 동안 전국 각지의 공군기지에서 예선대회가 펼쳐지며, 예선대회 수상자는 5월 28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예정된 본선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받는다.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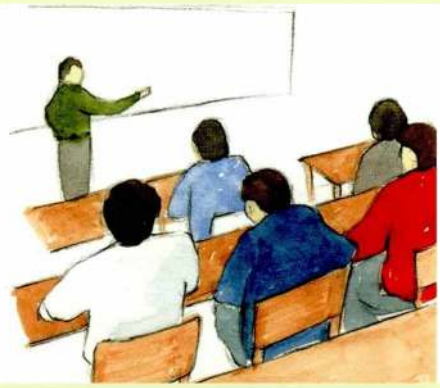
68살의 신입생

어느 봄날에 예순 여덟 살의 미국 노인이 스탠포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까만 선글라스까지 껴서 나이보다 한참은 더 젊어 보였던 이 노신사는 대뜸 영문학과의 한 교수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소설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소재를 찾고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노인을 바라본 교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세계적인 스포츠 의류 브랜드 나이키의 회장, 필 나이트였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소설을 배우고 싶다는 나이트 회장의 의도가 궁금해졌습니다. "당신은 커다란 부와 명성을 거머쥔 사람입니다. 글쓰기를 고상한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결코 아닙니다. 소설가는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남몰래 소설습작도 해왔습니다. 이제야 은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지금 도전한다고 늦은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교수는 나이트 회장의 학구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입생들이 듣는 '창의적 글쓰기'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를 청강하면 어떨지요."

나이트 회장은 새내기처럼 기뻐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나이트 회장은 영문학과에서 개설한 거의 모든 수업을 청강하면서 만학의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손자뻘 되는 학생들과 똑같이 과제물을 제출하고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은 일흔이 가까운 나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그 안에서 성실하게 노력했던 나이트 회장의 도전적인 행보는 '일단 한 번 해 보라(Just Do it)'는 나이키의 슬로건과도 일치합니다. 뜨거운 패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미지의 영역에 부딪혀 보는 진취적인 자세는 나이키를 성공으로 이끈 핵심적인 가치이자, 자신의 삶에서의 흔들림 없는 철칙이었던 것입니다.

도전에서 늦음이란 없습니다. 소중한 꿈과 이를 향한 넘치는 의지와 열정 앞에서 환경이나 나이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한 번 해보십시오.

'밥심'이 곧 **전투력**이다!

– 제11전투비행단 병사식당 탐방기 –

그 모습에 끌려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때 나타난 11비 급양병, 김대선 병장.

1. 기존의 식단은 부대임무,훈련일정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로 운영됐어. 또한 식재료들을 안정적으로 조달받기 위해, 획일적으로 식단을 운영했었고.그러나 11비 병사식당의 식재료는 **민간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 들어와.

2. 여러 민간업체들의 경쟁은 더 좋은 서비스로 이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맛있는 밥을 먹게 되었어. 선정된 업체는 매월 **새로운 식단 레시피**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설문을 통해 **병사들의 기호를 반영한 식단**을 구성해.

3. 또한 양질의 신선한 식재료 조달을 위해,하루 단위로 음식을 받아. 그리고 **잔반을 체크**해 문제점을 파악하지. 그 밖에 **식재료에 대한 위생검사를 의무화**해 장병들이 항상 안전하고 신선한 재료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 식사를 잘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정성우 일병!

출연. 일병 정성우, 이석준 | 공군본부 기동홍보팀, 병장 김대선 | 제11전투비행단 급양중대

대한민국공군
대표블로그
공감
SEASON II
WWW.AFPLAY.KR
공군공감은 공군의 작전훈련과 병영생활모습, 소식을 담은 컨텐츠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공군 대표 블로그입니다. 네티즌 눈높이에 맞춰 친숙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이루어져있으며 트위터(@afplay), 앱스토어(공군공감)을 통해서도 공군 공감을 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공군

Culture 36.5

킹스 스피치
* Hollywood English

참회를 거부한 어느 매력남의 최후,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 인생은 아름다워

농사의 신성함을 일깨워
주는 화가, 밀레
* Behind the Canvas

5월의 문화행사
* Preview

글. 이미도 | 외화번역가, 〈이미도의 영어선물〉 등 지음

킹스 스피치

the king's speech

다스 베이더의 목소리 주인공이 Stutterer?!

〈스타워즈〉의 불멸 캐릭터 다스 베이더(Darth Vader)의 목소리는 누구 것일까요? 바로 세계적 명배우 제임스 얼 존스입니다. 〈라이온 킹〉에 나오는 무파사의 목소리도 그가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인데도 어릴 땐 심하게 말을 더듬어 남 앞에 서질 못 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땐 단어를 내뱉기 전에 너무나 조심스러워했고, 듣는 이들은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제임스 얼 존스를 명연기자의 길로 이끈 스승은 고교 영어교사인 도널드 크로치입니다. 한번은 도널드가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언어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왜 소리를 내어 말하지 않느냐(If you love words so much why can't you say them out loud)?" 남다른 애정으로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준 스승께 제자는 어느 날 자작시를 내밀었습니다. 놀랍도록 뛰어난 시여서 감동한 스승은 "네가 쓴 시라는 걸 자랑도 할 겸 급우들 앞에서 낭송해보지 그러니?" 하고 권유했습니다. 제자는 따랐고, 그 후 그는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더듬이 왕 조지 6세의 실화 드라마

영국의 조지 6세 왕에게도 도널드 크로치 같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조지 6세가 말더듬이(stutterer, stammerer)였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조지 6세의 말더듬기를 고쳐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를 소개하기 전에 데이비드 슬레이더란 소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립니다. "얘야, '그분'은 너보다 훨씬 말을 더듬으셨어(David, he was a much worse stutterer).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어도 훌륭하고 감동 깊은 연설 덕분에 자유세계가 뭉쳤단다." 데이비드에게 소년의 부모는 종종 그렇게 희망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말을 더듬었던 데이비드에게 영웅이었던 '그분'이 바로 영국의 조지 6세 왕입니다. 어릴 때 그의 연설을 열심히 들었다는 데이비드는 훗날 시나리오 작가가 돼 엘리자베스 여왕 모후(Queen Mother)에게 조지 6세의 스토리를 써보고 싶다는 뜻을 편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후는 "옛날을 떠올리는 건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전엔 쓰지 말아 달라" 하고 부탁했고, 데이비드는 모후가 서거하던 2002년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지 6세의 치료사를 등장시킨 작품이 〈킹스 스피치 The King's Speech〉입니다.

군주와 괴짜 언어치료사의 운명적 만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조지 6세는 5세 때부터 말을 더듬었다고 하는군요. 훗날 왕자 자격으로 공적 활동을 할 때마다 그는 연설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데, 〈킹스 스피치〉는 그가 말더듬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연대기 순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햄릿 Hamlet〉을 암송하게 된 특이한 사연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왕자 시절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당시 세상을 전쟁의 공포 속에 몰아넣던 히틀러가 아니라 마이크이더군요. 이미 1925년 '대영제국 박람회(British Empire Exhibition)' 연설로 만천하에 만신창이가 된 그는 아내(헬레나 본햄 카터, 훗날 Queen Mother, 즉 엘리자베스 여왕 모후가 됨)의 간청에 응해 괴짜 언어치료사인 로그(제프리 러쉬)를 찾아갑니다. 실패한 연극배우 출신인 그는 참전군인들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말을 더듬던 군인들을 치료해준 경험이 있기에 머뭇거림 없이 조지 6세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조지 6세는 불쾌한 기억만 안고 돌아옵니다. 언어치료사라는 자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며 대놓고 저속한 말('f'-word)을 내뱉어보라 하질 않나, tongue-twister(우리말의 '간장 공장 공장장' 또는 '기린 그린 그림' 처럼 비슷하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음운을 조합해 만든 문장)을 아이들처럼 꽥꽥, 짹짹 외쳐야 했으니까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조지 6세를 Accidental King이라고 칭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즉, 형(에드워드 8세)이 이혼녀인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권을 내놓는 바람에 '얼떨결에(accidentally)' 왕이 된 조지 6세는 국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뇌합니다. 영화엔 그가 〈햄릿〉의 명대사인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을 읊조리며 햄릿이 처한 진퇴양난의 곤경이 마치 자신의 운명과 처지인 양 힘들어하는 설정이 나오는데요, 언어치료를 받을 때 로그가 치료 과정을 녹음해준 레코드판이 있다는 걸 떠올립니다. 글의 흐름을 끊는 것 같아 잠시 죄송합니다만, 저는 영화에서 이 대목을 가장 '기억할 만한 장면(scene-stealer)'의 하나로 꼽습니다. 레코드판을 통해 흘러나오는 자신의 음성을 듣던 조지 6세는 망연자실 넋을 잃어버립니다. 치료받을 때 로그가 시킨 대로 헤드폰을 쓴 채 '피가로의 결혼'을 쾅쾅 들으면서 '햄릿'을 읽었던 것인데, 전혀 더듬지 않고 〈햄릿〉을 술술 읽어낸 자신을 발견한 것이지요. 조지 6세는 로그에게로 달려갑니다.

히틀러를 상대로 포문을 연 조지 6세의 연설

세월이 흐르고, 조지 6세가 어릴 때 얻은 정신적 외상도 차츰 치유됩니다. '언어와의 전쟁'을 통해 겪었던 아픈 기억들도 대폭 치유됩니다. 그 결과 조지 6세는 연설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찾아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크나큰 위기가 닥칩니다. 1939년에 이르러 조지 6세는 최대의 전쟁을 치러야 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자유세계의 동맹을 결집시킬 선전포고를 위해 히틀러를 상대로 마이크 앞에 선 조지 6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자 군주는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로그는 군주의 눈동자를 위무하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친구한테 하듯 말하세요(Say it like you talk to your friend)." 드디어 '왕의 연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이어지는 감동의 대단원은 여러분이 직접 감상하실 몫이기에 아껴두기로 합니다. 〈킹스 스피치〉는 올해 83회 아카데미에서 12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으며, 작품상, 감독상(톰 후퍼), 남우주연상, 그리고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AF**

이미도 작가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midomiho

〈만종〉 1857~1859년, 캔버스에 유채, 55×66,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농사의 신성함을 일깨워 주는 화가 밀레

프랑스 농촌의 전형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밀레의 〈만종〉은 우리나라에서 속칭 이발소 그림으로 알려질 정도로 복제가 많이 된 작품이다. 하루 세 번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면 기도를 했던 프랑스 바르비종의 풍습을 그린 〈만종〉은 프랑스의 자랑이지만 작품의 예술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고단한 농촌의 풍경을 경건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복제품으로 인해 원작의 의미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여자의 뒤로 아스라이 보이는 교회의 종소리에 농부들은 일손을 멈추고 기도한다. 남자의 좌측에 감자를 캐는 괭이가 서 있다. 근처 여자의 주변에 감자를 담은 바구니와 감자자루를 실은 손수레가 보인다. 이는 노동자로서의 남자의 모습과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당시 성별에 따른 역할이 분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밀레는 신앙심을 찬미하기보다는 농촌 종교생활을 주도하고 있던 여자를 강조하기 위해 석양의 빛을 여자에게 향하게 했다.

〈만종〉만큼이나 복제되는 작품이 〈이삭 줍는 사람들〉이다. 이 작품은 바르비종 가까이에 있는 샤이 마을의 풍경으로 추수가 끝나고 이삭을 줍는 세 여인의 모습을 그렸다. 추수가 끝난 농장에서 들판의 세 여인은 허리를 굽혀 손으로 일일이 남아 있는 낟알을 줍고 있다. 여인 뒤에 보이는 농부들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추수가 끝난 들판에 곡식을 가득 실어놓은 짐수레와 수확이 끝난 건초 더미들이 보인다. 화면 오른쪽에 말을 탄 사람이 농부들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작품에서 건초더미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은 풍년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은 풍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들은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은 농부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여인들이 입고 있는 낡고 뻣뻣한 옷은 그들의 서민계층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청색과 붉은색, 노란색을 사용해 익명의 여인들을 구별했다. 화명 중앙 여인들의 모습은 고전주의 형식인 '삼미신'과 같은 구도를 택하고 있지만, 밀레는 고전에서 느낄 수 있는 귀족적인 분위기 대신 익명의 노동자를 선택해 노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농부들의 고된 삶을 솔직하게 묘사한 이 작품이 1857년 살롱에 전시되면서, 보수 계층으로부터 '누더기를 걸친 허수아비' '빈곤을 관장하는 세 여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1848년 프랑스 제2혁명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서 노

〈양치기 소녀〉
1864년, 캔버스에 유채, 83×101,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장 프랑수아 밀레의 자화상

〈이삭 줍는 사람들〉
1857년, 캔버스에 유채, 83×111,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동자들은 중상층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었다. 비평가들은 밀레가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이삭 줍는 사람들〉을 제작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밀레는 비평가들의 비난에 굴하지 않고 1850년대부터 그려왔던 농촌 풍경을 그린 〈양치기 소녀〉로 살롱전 1등상을 거머쥔다. 이 작품은 〈만종〉과 같이 황혼녘 교회 종소리에 맞춰 양치기 소녀가 막대를 쥔 채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 소녀와 양떼는 어둠에 묻혀 있다. 지평선을 배경으로 인간과 대지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밀레는 정기적으로 양치기를 즐겨 그렸다. 밀레에게 있어 양치기는 소박한 사람의 일상적인 노동이 아닌, 종교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구약이나 신약성서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선량한 양치기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성경을 늘 읽었던 밀레는 평범한 양치기 소녀를 통해 종교적 성찰을 나타내고자 했다.

장 프랑수아 밀레(1814~1875)는 농민화가라는 수식어와 다르게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밀레는 화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파리에서 활동하지만, 그의 재능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성을 인정받기 위해 살롱전에 도전, 결국 1840년 초상화로 입선하게 되었다. 살롱전의 성공으로 밀레는 고향과 파리를 오가면 초상화 작업에 전념하지만, 경제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부르주아 계층을 위해 누드화를 그려 생계를 유지하다, 1849년 콜레라가 극성을 부리자 파리를 떠나 바르비종에 정착한다.

바르비종에서 밀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또한 밀레는 바르비종은 물론 인접 지역 마을의 농부들의 고달픈 삶에 주목했다. 숲으로 땔감을 주우러 간다거나, 가을걷이가 끝난 뒤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가난한 농부들의 일상을 화폭에 담아냈다. 절망 끝에 매달려 있는 희망을 찾기 위해, 땅에 인생을 걸고 있는 농부들의 가난한 삶이 밀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때부터 밀레는 농민풍경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다. 밀레는 정치에 무관심했지만 농부의 삶을 그린 작품들 때문에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밀레는 농민들의 일상적인 몸짓을 간결하면서도 힘 있게 표현하는 화풍을 형성해 나갔다. 생전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밀레지만, 농민을 주제로 한 그의 작품들을 프랑스 정부는 사들이지 않았다. 결국 밀레 사후, 그의 작품이 모두 매각처분되는 과정에서 프랑스 컬렉터들이 직접 나서 그의 작품을 회수하기에 이른다. **AF**

오페라 무대 위의 사람들 ❺

참회를 거부한 어느 매력남의 최후,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작곡가 모차르트의 음악은 언제나 경쾌하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모차르트의 웃음처럼, 장난기 많은 그의 음악은 명랑함이라는 매력이 바래는 법이 없다. 오페라 [돈 조반니]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이 오페라의 주인공은 여자라면 그저 좋다는 희대의 바람둥이. 이탈리아어로 '돈 조반니', 스페인어로 '돈 후안'이라고 하는 이 카사노바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여인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귀족 신분인데다가 돈도 많은 이 매력남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많은 여인을 만나고 다닌다. 이처럼 돈 조반니가 담대한 모험에서 매번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건 그의 심복 '레포렐로'가 있기 때문. 돈 조반니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건,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레포렐로 덕분에 그는 철없는 행동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다.

오페라가 시작되고 막이 오르면, 바람둥이 돈 조반니는 여지없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다. 밤이 어둑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돈나 안나'의 방에 숨어들어가서는, 놀란 여인을 부드럽게 유혹한다. 돈나 안나는 이미 약혼자가 있는 여인이었음에도, 돈 조반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개의치도 않는다. 그런데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해졌다. 돈나 안나의 방에서 나오는 길에 그녀의 아버지 '기사장'을 만난 것이다. 딸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화가 난 기사장은 돈 조반니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두 사람은 한밤중에 결투를 벌인다. 하지만 싸움에도 능한 돈 조반니가 당하는 법은 없었다. 결국 돈 조반니의 칼에 찔린 기사장은 숨을 거두고, 돈 조반니는 흔적도 없이 줄행랑을 친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슴 졸일 법도 하지만, 돈 조반니만큼은 달랐다. 그는 또다시 새로운 여인을 만날 궁리 중이었다.

돈 조반니를 따라다니며 전 세계를 여행한 레포렐로에 따르면, 돈 조반니는 무려 1,800명의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레포렐로의 카탈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카탈로그의 노래, il catalogo e questo)** 이탈리아에서 640명, 독일에서 231명, 프랑스에서 100명, 터키에서 91명, 놀랍게도 스페인에서는 1,000명하고도 3명... 시골 아가씨부터 차가운 도시의 미녀, 백작 부인, 공주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라면 노소, 계층을 가리지 않는 돈 조반니는 "나는 마음이 관대하여, 모든 여성을 골고루 사랑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다. 희대의 바람둥이이자 사기꾼인 돈 조반니... 그는 감미로운 말과 부드러운 눈빛으로 또다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런데 끊임없이 돈 조반니에게 유혹 당하는 여성들도 문제다. 오페라에 등장하는 두 번째 여인 '돈나 엘비라'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 돈 조반니는 결혼을 조건으로 그녀를 유혹하고 떠나 버렸지만, 돈나 엘비라는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돈 조반니의 파렴치한 삶을 바꿔 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뒤쫓았지만, 이 자유로운 남성에게 정숙한 여인의 부탁은 조금의 가치도 없었다. 그는 곧 죽어도 후회라는 건 알지 못하는 남자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엘비라는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겪은 고통 생각하면 복수의 불길이 들끓어도 그의 멸망 눈앞에 보이면 내 가슴은 쓰라림으로 메어지네." 못된 짓만 일삼는 사기꾼이지만, 여인의 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남이었나 보다.

하지만 돈 조반니는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다. 이 오페라에 등장하는 세 번째 여인 '체를리나'에게도 그럴 뻔했다. 결혼을 앞둔 신부 체를리나를 발견한 돈 조반니는 이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런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레포렐로 아니겠는가. 돈 조반니는 레포렐로를 시켜서 체를리나의 약혼자를 성으로 보내고 체를리나와 단둘이 남는 시나리오를 짠다. 시골 아가씨였던 체를리나는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귀족이라는 신분과 부유함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끌리고 만다.**(우리 함께 손잡고, La ci darem la mano)** 그런데 바로 그때, 불청객이 나타난다. 돈 조반니를 잊지 못하는 여인 '돈나 엘비라'가 나타나, 더 이상 자신 같은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체를리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예기치 못한 엘비라의 훼방으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 다른 방해 세력이 나타나 돈 조반니를 압박한다. 결투로 아버지를 잃은 돈나 안나와 그의 약혼자가 복수를 위해 찾아온 것이다.

그날따라 되는 일이 없었던 돈 조반니... 살아가면서 당황하는 기색이란 결코 지어본 적이 없었던 그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도처에서 훼방꾼이 나타나자, 그는 줄행랑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도 오래 가지는 않는다. 그는 또다시 새로운 여인을 발견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엘비라의 하녀가 마음에 든 조반니는 레포렐로와 옷을 갈아입고 그녀를 유혹하기 위한 세레나데를 부른다.**(오 사랑하는 이여, 창가로 와주오, Deh, vieni alla finestra)** 위기의 순간에도 만돌린을 연주하며 여유롭게 노래하는 이 남자가 바로 돈 조반니였다.

2천명 가까운 여인을 만났던 돈 조반니. 하지만 이날만큼은 어느 누구도 그의 편이 되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훼방꾼을 만나 쫓긴 그가 도착한 곳은 한적한 교회의 묘지. 그런데 이곳은 돈 조반니와의 결투 끝에 세상을 떠난 기사장의 기마상이 있는 곳이었다. 어느덧 새벽 2시가 된 교회의 묘지... 돈 조반니는 아름다운 밤이라고 찬사를 늘어놓지만, 레포렐로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들은 기사장의 기마상이 내려다보이는 무덤가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돈 조반니는 또다시 자신의 모험담을 늘어놓는다. 레포렐로의 옷을 입고 여인을 유혹한 이야기며, "레포렐로의 계집이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바로 그때 들려오는 묵직한 목소리... "너의 그 방자한 웃음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잠잠해지리라." 돈 조반니에게 경고하는 이 예언은 기사장의 기마상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다. 매서운 눈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기마상의 위엄에 레포렐로는 몸서리치지만, 배짱 두둑한 돈 조반니는 기사장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이제 무대는 돈 조반니의 저택. 저녁 식사에 초대 받은 기사장의 석상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돈 조반니를 찾아온다. "그대가 나를 식사에 초대하여 이렇게 왔도다." 그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더니, 이번에는 자신이 그를 식사에 초대하겠다고 제안한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세상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결국 돈 조반니를 저세상으로 데려가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돈 조반니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겁쟁이가 될 수 없다며,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참회하라는 기사장의 제안을 끝내 무시하며, 돈 조반니다운 최후를 준비한다. 곧 죽어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희대의 사기꾼... 이제 그에게는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장의 석상이 갈라지면서 곳곳에서 불길이 타오르더니 저택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거대한 불꽃에서 나온 복수의 여신이 돈 조반니를 끌고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수많은 여인을 품에 안고 그네들을 울게 했던 돈 조반니... 그는 결국 복수의 여신에 이끌려 대지의 품속에 영원히 갇혀버리고 말았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회를 거부했던 돈 조반니... 불타오르는 그의 저택에서는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죄 지은 자는 죗값을 받고 말아. 언제나 죗값을 치러야 하지." 평생토록 참회를 거부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어느 남자의 최후였다. **AF**

20세기 역사적 인물의 진심과 마주하다. 인물사진의 거장,

〈카쉬展〉

이번 전시회는 인물사진, 사람의 손, 풍경 등 모두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이 중 백미는 20세기의 역사적 인물들로 구성된 다양한 인물 사진. 오드리 햅번, 윈스턴 처칠, 알버트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20세기 유명 인사들의 살아있는 표정을 오리지널 필름으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국내전시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앤디워홀과 넬슨 만델라, 샤갈,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시대를 대표하는 명사의 사진들이 볼 만하다. 전시작들은 카쉬가 직접 만든 것으로 디지털 프린팅이 아닌 캐나다 유섭 카쉬 재단이 소장한 오리지널 빈티지 필름으로 소개돼 더욱 의미가 있다.

어린 시절 터키인으로부터의 박해와 수많은 대량학살을 목격한 유섭 카쉬.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직접 보고 1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막을 가로질러 캐나다로 도망가는 등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이기에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에 순간이 아닌 영혼이 담겨있는 듯하다.

- 기간 : 5월 22일까지
- 장소 :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 가격 : 성인 9천원(국가유공자는 50% 할인)
- 홈페이지 : www.karshkorea.co.kr

"젊음, 즐길 준비 되었는가!" 뮤지컬

〈젊음의 행진〉

80년대 최고의 쇼 프로그램 '젊음의 행진'. 송승환, 왕영은 등 떠오르는 청춘 남녀 스타들이 진행을 했고, 소방차, 강수지, 김완선에서 신승훈, 신해철,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까지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들이 총출연했던 음악 버라이어티 쇼가 뮤지컬로 돌아왔다.

특히 이번 뮤지컬은 90년대의 대표적인 만화 캐릭터 '영심이'가 33살로 성장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독특한 구성. 왕년의 하이틴 스타인 형부와 함께 '젊음의 행진' 콘서트를 준비하던 영심은 전기안전점검을 위해 공연장을 방문한 왕경태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아련한 옛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김건모의 '핑계', 신해철의 '그대에게' 등 전주만 들어도 짜릿한 우리의 8090시대를 대표하는 주옥같은 가요들이 뮤지컬 넘버로 등장한다.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한 명의 작곡가 노래로 7080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뮤지컬 〈젊음의 행진〉은 8090 스타들의 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젊음의 콘서트가 될 것이다.

- 기간 : 6월 26일까지
- 장소 : 서울 코엑스아티움 현대아트홀
- 가격 : VIP 7만 / R 6만 / S 4만 / A 3만원
- 홈페이지 : www.i-pmc.co.kr

Opinion

추기경과 어머니

* 창공 글터

실행이 답이다

* 책마을

봄철 황사와 건강관리

* Health Diary

글, 사진. 고은기 |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창공클럽〉 회원

〈故 김수환 추기경 생가에 걸린 사진〉

추기경과 어머니

생가에 걸린 사진

이 고장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는 이 땅의 가톨릭이 세계와 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바로 김수환 추기경이다. 경상북도 군위(軍威)에 있는 추기경의 생가를 찾았다. 언덕 위의 초가집이었다. 물론 이 집은 옛 모습을 재현해 놓은 데 지나지 않는다. 마루의 한쪽 벽에는 1993년, 아직 건장한(?) 모습의 추기경이 이 집을 찾아와 회상에 잠긴 모습이 찍혀 사진으로 걸려 있었다.

〈추기경 생가〉

사진 속의 생가는 슬레이트 지붕의 다 허물어져 가는 시골 농가였다.

"태어나기는 외가였고요……. 여기는 본가인데,
다섯 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사시다 대구로 이사 했답니다."

생가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군청 직원의 말이다. 사실 군위군은 『삼국유사』에 운명을 걸고 있다. 문화회관의 이름도 '삼국유사문화회관'이고, 새로 만든 도서관도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이다. 도서관 안에는 '삼국유사자료실'을 따로 두었다. 아직은 조성 중이라 규모는 초라하지만. 물론 이런 '삼국유사 열풍'은 이 책의 지은이인 일연 국사가 여기서 세상을 마쳤기 때문이다. 나는 자꾸 추기경과 국사가 오버랩 되었다.

군청에서 생가까지는 3킬로미터 남짓한데, 나중 추기경이 된 소년은 이 길을 걸어 학교에 다녔고, 장날이면 물건을 파는 장사꾼 앞에 한없이 서 있곤 했다. 소년은 그가 부러웠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돈 때문이었다. 그러나 군위 사람들이 몽마르트 언덕이라 부르는, 군청 맞은편 야트막한 언덕 위의 성당에서 어느 날 벌어진 사제서품식이 소년의 생애를 결정했다면 결정했다.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며, 아들들을 반드시
신부로 키우겠다고 결심했다 안 합니까."

군청 직원의 말이다. 추기경의 형이 먼저 신부가 되었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복원한 생가에 걸린 사진을 찍던 때라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KBS 열린음악회의 청중석에 앉아 있던 추기경이 사회자의 권유에 못 이긴 척하고 불렀던 노래다. 김수희의 '애모'였다. 순간 청중석의 곳곳에서 터져 나오던 놀라움의 탄성. 아마도 이 무렵이었을 것이다.

나는 추기경의 종교적인 깊이나 사상을 잘 모른다. 1968년에 대주교가 되었고 이듬해 추기경이 되는데, 그것이 마흔 일곱 살의 최연소, 아시아에서 세 번째라는 세속적인 기록에만 관심이 더 갈 뿐이다. 그러나 추기경은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의식 속에 고스란히 잡혀 있다. 대주교가 되던 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나는 7~80년대 학생 시절,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추기경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의식 속에 들어와 지남(指南)이 되었다. 비록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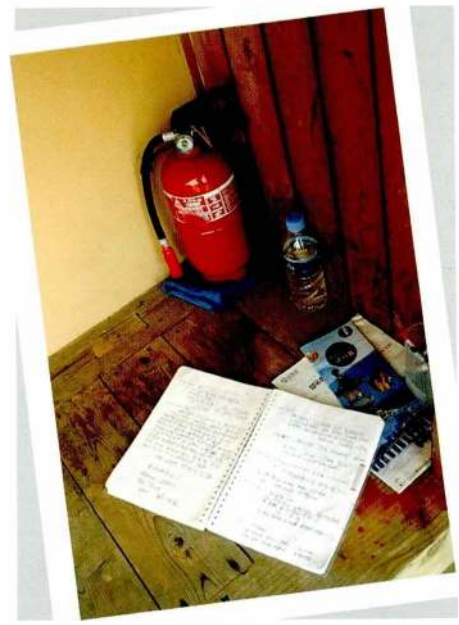
추기경이 살던 언덕 위의 작은 집을 내려오는데 노래가 다시 생각나 흥얼거려 보았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김수희의 '애모' 첫 소절. 추기경에게 '그대'는 누구였을까? 물론 하느님이겠지. 하느님처럼 섬기는 교회와 신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마침 그 무렵 이 생가를 다녀간 다음이었다면, 일찍 남편을 잃고 여덟 남매를 홀로 키운 당신의 어머니가 그대 아니었을까 싶었다. 추기경은 5남 3녀 가운데 막내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나만, 추기경에게 어머니는 특별했다.

얼마만인지 모르게, 쓰러져 가는 생가에 다시 들른 추기경은 한없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적어도 사진 속의 모습은 거짓 없이 그렇게 다가온다. 마당에 찍힌 어머니의 발자국이라도 떠올리는 것일까. **AF**



〈생가를 찾은 사람들이 남긴 방명록. 신앙고백에 가까운 글들이었다.〉

글. 소령 양진백 |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센터장

봄철 황사와 건강관리

STAY HEALTHY

해마다 봄철이 시작되면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봄철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원인물질은 호흡기나 눈, 피부 등에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이맘 쯤 불어오는 황사먼지 역시, 기관지나 피부를 더욱 자극하게 되므로 알레르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황사는 대다수 국민 건강상태에 피해를 줄 뿐더러, 유아 및 노약자, 천식과 만성호흡기 환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이번 달은 봄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에 대해 알아보고, 황사가 끼치는 인체의 영향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꽃과 나무가 많은 군부대에서 계절성 알레르기 질환을 경험하는 공군 장병들은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황사

해마다 봄이면 황사가 발생합니다. 황사는 봄철 중국내륙지방이 건조해지면서 황하지역에서 발생한 모래폭풍에 의해 먼지와 모래입자가 계절풍을 타고 한반도 및 멀리는 미국서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황사의 발원지가 내몽고 사막 쪽으로 동진하여, 한반도에는 좀 더 큰 입자까지 날아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혹, 중국의 초대형 모래먼지 폭풍으로 가시거리가 50m 이내인 '특대 황사'도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황사가 발생하면 모래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유해물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업지역을 경유하면서 날아온 황사는 카드뮴, 납, 알루미늄, 구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기를 황갈색으로 오염시킵니다. 이러한 황사 분진은 신체의 말초 기관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되는데, 코나 입을 통해 호흡기로 들어가면 기도 점막을 자극해 호흡이 곤란해지고 목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안질환, 비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봄철에는 유난히 알레르기로 인한 기관지 천식, 결막염,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호흡기 질환

공기 중의 황사가 폐로 들어가면 기도 점막을 자극해 기관지가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도 호흡이 곤란해지고 목이 아프게 됩니다. 특히 기관지가 약한 천식 환자나 폐결핵 환자가 황사에 노출되면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천식의 증상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연속적으로 하며, 숨이 차고 호흡할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밤늦게 혹

은 새벽에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황사 발생 시 호흡기질환에 대한 일반적 대처요령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인 마스크는 황사먼지에 대한 방지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분진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내에서는 건조한 공기에 대해 가습기를 사용 습도를 높이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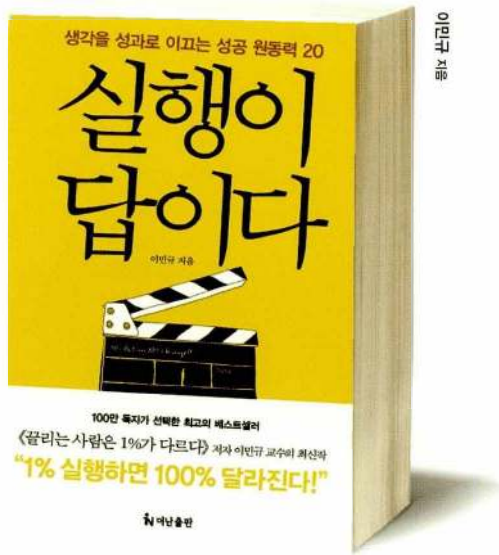
안질환

황사와 봄철의 건조한 공기는 자극성 ·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렵고 눈물이 많이 나며, 빨갛게 충혈되고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 주된 증상입니다. 눈을 비비면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고 증세가 심할 경우 눈 주위가 부풀어 오르며, 콧물 · 재채기 · 코 막힘 등의 비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황사가 심한 경우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귀가 후 즉시 눈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콘텍트렌즈 등 눈의 건조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인공 눈물 등을 사용하여 눈의 건조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의 이물제거에 유리하도록 렌즈 착용은 자제하며,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안경이 권장됩니다.

피부 질환

봄볕의 자외선과 건조한 날씨, 거기에 황사가 겹친다면 피부를 더욱 자극합니다. 겨울 동안 닫혀있던 땀샘과 피지선이 열려 피지분비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황사먼지로 가려움증과 따가움이 심한 경우, 발진이나 발열, 부종으로까지 이어지는 피부염과 피부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긴팔 옷이 권장됩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가 손상된다면, 황사먼지 같은 자극에 더 민감할 수 있으므로 피부 보습에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외출 전 보습크림을 발라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스카프로 목 주위를 두르면 피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황사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사고까지 겹쳐 황사 피해뿐 아니라 방사성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군 장병들께서는 봄철 황사 피해에 대한 대처요령을 실천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F**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던 시간[1] 도, 벚꽃 그늘 아래에서 모든 것을 벗어놓고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시간[2] 도 모두 지나가고 또 다시 새로운 한 달, 5월을 맞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 달 제가 소개해드린 좋은 길들을 한 번 거닐어 보셨는지요? 부끄럽게도 저야말로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의 여유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마저 없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는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용기가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때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한 번쯤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책은 바로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입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을 통해 널리 알려진 심리학 박사 이민규 교수가 쓴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은 어쩌면 그 제목처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종류의 '실행 지침서'들을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접해왔던 많은 책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과연 나에게 주어진 슈팅 기회에서 어떻게 공을 차면 골을 넣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책에서는 슈팅 기회에서 골을 넣으면 이긴다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실행의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무수히 많지만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 그것을 통해 성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목표정하기', '실천하기', '포기하지 않기'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민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긍정적인 자기최면은 의외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그 생각과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실행하는 힘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들을 알지 못해서 실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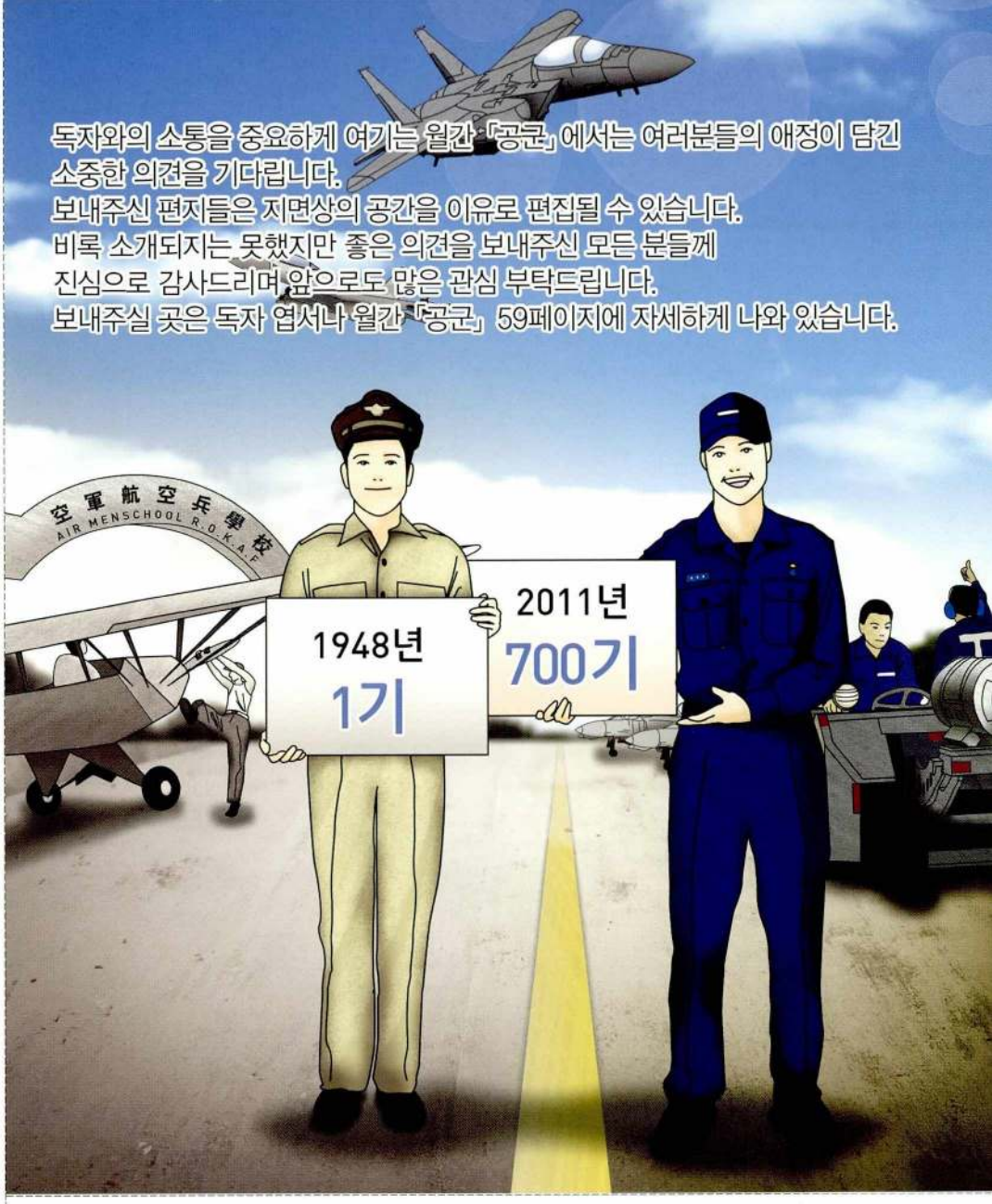
2011년도 벌써 절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실천하지 못한 일들은 후반기에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 이미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이 있다면 5월이 가기 전에 한 번 실행해보세요. 그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실행이 답이다」에서 답을 찾아보시는 것을 어떨까요? **AF**

1) 시인 박목월의 시 「4월의 노래」에서 인용
2) 시인 이기철의 시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에서 인용

2011
May
no.395

POSTCARD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5.1~2012.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공군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2011 May

no.395

POSTCAR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월간 「공군」 5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5월호 퀴즈 정답

1.

2.

3.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표지와
동북아 최고의 전투기
F-15K가 입혀진
카드 USB 4G를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5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5월 31일까지

1. 4.5세대 유럽형 스텔스 전투기로,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합작해 만든 전투기는 무엇인가?

2. 영화 〈킹스 스피치〉의 주인공이자, 영국의 국왕이었던 이 사람은 누구인가?

3. 프랑스 바르비종에 정착해 농사의 신성함을 일깨워주는 그림을 그렸던 화가는 누구인가?

3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스텔스 2. 자크 루이 다비드 3. 물

퀴즈 당첨자 대전 동 구 **성시옥** ● 강원 강릉시 **김현주** ● 충북 청주시 **김기성**
전남 순천시 **전종권** ● 전남 여수시 **양이준** ● 광주 광산구 **이길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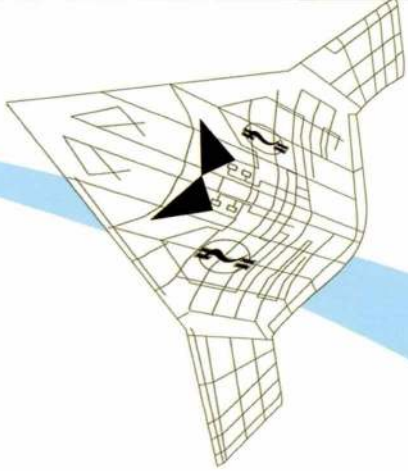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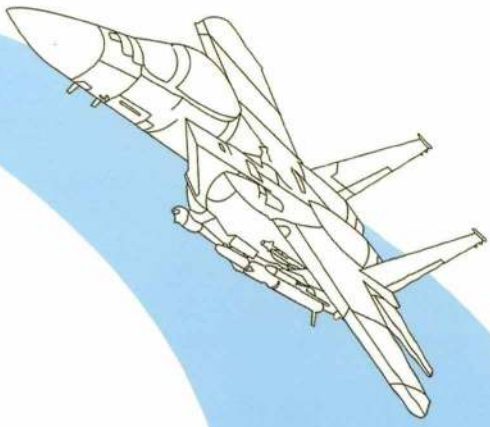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35 / 042-552-6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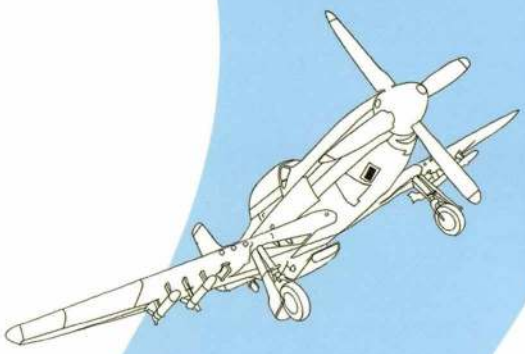
간첩 · 테러범 · 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 : 1337, www.dsc.mil.kr)
간첩선(1억 5천만원), 간첩(1억원)





스페이스 챌린지 2011

SPACE CHALLENG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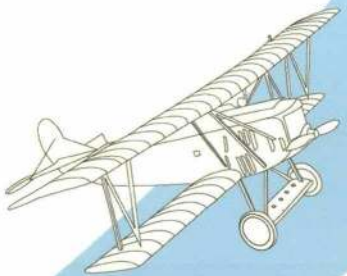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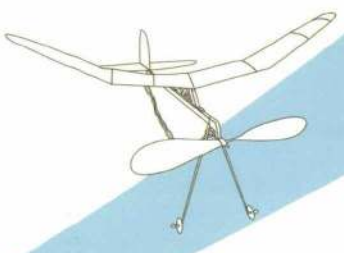
본선대회 5월 28일(토) [예비 6.5(일)]
공군사관학교

접 수 공군홈페이지
[www.airforce.mil.kr]

주최 · 주관 대한민국 공군

후 원 공군발전협회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항공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소년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33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11

대한민국공군